

계간 쟁기

이야기 | 생각 | 문화

여름 2019

자본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맥도날드 테스트

크리스 아나디

기독교 사업이란
모순된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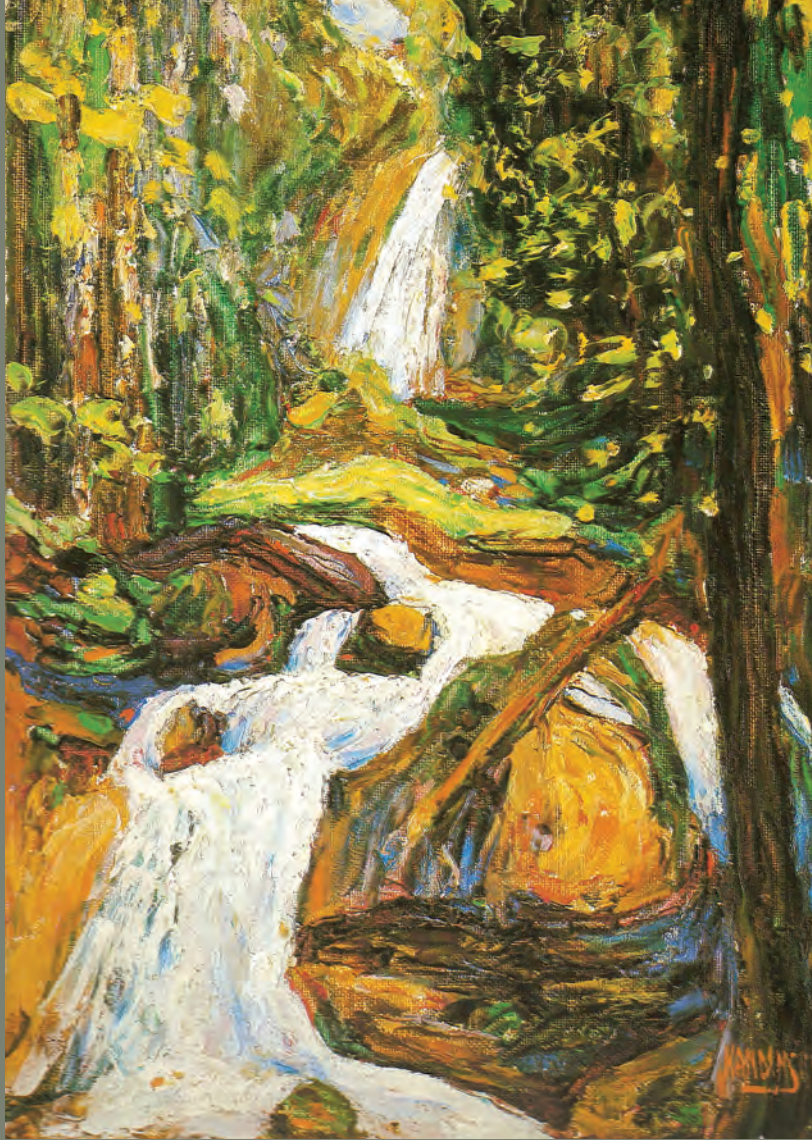
존 로즈

•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 _ 에버하르트 아놀드

• 워킹 걸 _ 마리아 헨지펠트

•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_ 마크 보일

• 선구자들 _ 구스타프 란다우어



바실리 칸딘스키, 코헬-폭포, 캔버스에 유화, 1900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여름 2019, 제3호

편집자의 편지	피터 맘슨	3
독자의 편지		10
가족과 친구들		11
특집: 자본주의 너머		
자본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데이빗 벤틀리 하트	12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	에버하르트 아놀드	21
맥도날드 테스트	크리스 아나디 인터뷰	26
워킹 걸	마리아 헨지펠트	40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마크 보일	46
기독교 사업이란 모순된 말인가?	존 로즈 인터뷰	52
선구자들: 구스타프 란다우어	제이슨 란젤	60

아티스트: 바실리 칸딘스키, 데보라 배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엘리스 팔미지아니, 대니 버로우

www.plough.com/ko

계간 쟁기

www.plough.com/ko

계간 <쟁기>를 펴내는 공동체를 만나세요



쟁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브루더호프가 펴내는 잡지입니다. 브루더호프는 가족과 미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은 산상수훈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영감을 받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파라과이, 한국 등에 있는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홈페이지: bruderhof.com/ko

<쟁기>는 일상의 믿음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신념은 달라도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쟁기>는 독자들들과 글쓴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쟁기>는 편집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저자의 글을 씁니다. 기고문은 쟁기의 편집 방향이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피터 맘슨, 비어리 홀리엇, 샘 하인, 오지니, 오케빈, 원마루. 번역 위원: 배지영, 전나무, 전남식, 조남규, 최성연. 디자인: 로잘린드 스티븐슨, 미리엄 벌러슨, 한국판 디자인: 산위에동네. 관리: 새나 구드윈, 객원 편집자: 모린 스윙어, 수잔나 블랙, 이안 바트

창간 편집자: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

<쟁기> 3호, 자본주의 너머, 2019년 여름호

쟁기출판사 발행, isbn 978-0-87486-333-8

Copyright © 2019 by Plough Publishing House.

표지 그림: ATM, Pawel Kuczynski 작품.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뒤 표지 그림: @mckellajo, Hive & Hum에서

표지 안쪽 그림: 위키아트(여블릭 도메인)

일러 두기: 본문에 언급된 책이나 간행물 중 한국에서 번역, 발간된 작품은 한글 제목과 함께 출판사 이름을 밝혔고,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경우는 한글 번역과 원래 제목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편집부	영국	호주
PO Box 398	Brightling Road	4188 Gwydir Highway
Walden, NY 12586	Robertsbridge	Elsmore, NSW
USA	TN32 5DR	2360 Australia
T: 845.572.3455	T: 01580.883.344	T: 02.6723.2213

<쟁기>는 플라우 출판이 펴내는 간행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구독 문의: info@plough.com

쟁기책방: plough.com/bbang

사랑의 경제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피터 맘슨

프랑스 혁명의 약속인 ‘자유, 평등, 박애’는 21세기의 젊은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워즈워스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기 세대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시를 썼다. “그날 새벽,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젊다는 것이 더 큰 천상의 축복이었다.” 사랑 안에서 강해졌다고 여긴 워즈워스와 급진주의자 친구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유토피아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세상에서.”

젊은 시인 워즈워스의 열정은 세기 세기의 갈래길마다 다시 튀어 나왔다. 그의 시구가 실린 1805년의 《서곡》에서 프랑스 혁명의 세세한 공약들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희열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희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영국의 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 민주당들은 극좌파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 자신들의 계급 투쟁의 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 회원들의 수는 2016년 6천명에서 2019년에는 대략 6만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 미국인들의 5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45% 정도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급진주의자들은 <자코뱅>이나 <인 디즈 타임즈> 같은 좌파 잡지들의 열렬한 입장과 거리를 두려

엘리스 팔미지아니 그림

그림 Elise Palmigiani. elise-palmigiani.pixels.com 모든 작품은 작가의 동의 하에 수록



모든 것을 함께

후터형제회의 감독이었던 피터 발포트(Peter Walpot, 1521-1578)는 아나뱃티스트의 고전적인 신앙문이라 할 수 있는 “대 조항문(Great Article Book)”을 집필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재산의 소유는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나 합당한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재산을 소유한다는 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반면, 진실로 공유하며 사는 공동체의 삶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바른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모든 것은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 누구도 공기나 비, 눈, 물, 태양이나 달 그리고 비바람을 원한다고 더 많이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어졌던 것을 두 팔을 벌려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주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하지만, 인간이 선택한 사악함, 즉 질투와 탐욕은 모든 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면 우리 삶에 커다란 불평등이 찾아오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많이 외버렸다. 만약, 태양이나 달, 혹은 비바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려 애쓸 것이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팔 것이다.

출처: “진정한 내어맡김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재산 공유(True Surrender and Christian Community of Goods)” Section 143, ed. Robert Friedmann, Mennonite Quarterly Review, 1957. 1.

는 건지(위즈위스처럼) 희열이니 축복이니 떠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 바로 지금이 연대적 대중 운동에 의해 편중된 권력과 부, 폭정이 극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각각의 개인에게 각각 다른 의미들로 다가온다. 위즈위스 시대처럼 특정한 운동의 세부 내용이 급진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결국 싸움의 명분을 주는 해방감이다.

그렇다면 그 명분은 정확히 무엇일까? 사회주의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줄 아는 동시에 적어도 한 가지의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부와 절망적인 빈곤이 함께 존재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죄라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황금률을 굳건히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건강 관리, 양질의 주거환경, 교육, 임금, 노후 보장)을 누리도록 도덕적으로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가장 부유한 문명을 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단만 했을 뿐 해결책은 아직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전체 경제를 국가가 인수하는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많은 논의가 되어 온 바스카르 선카라의 저서 “사회주의자 선언문(The Socialist Manifesto)”은 ‘사회주의 시민의 하루’라는 흥미로운 장으로 시작하는데 임금 노동이 폐지되고 모든 생산의 수단들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2036년의 미국을 상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와 같은 현실 사회주의 정부의 실제 사례와 대조되는 뉴저지의 본조비 파스타 소스 회사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이끄는 노동자 혁명을 경쾌하게 그려낸다.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려던 것이 오히려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견해를 낳았지만, 이 기회를 통

해서 민주주의와 선의의 행복한 결합이 독재와 억압으로 추락한 사회주의의 오랜 역사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파 진영에서 자본주의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은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다. 많은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연대와 공동체,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자유분방한 엘리트들이 빈곤한 노동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가져다 주는 가치들, 즉 결혼 제도와 신앙의 결속,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정체성,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한 충성심, 소속감 등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퍼스트 씽스>(First Things)잡지에서 강력한 성명서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개인의 부유함만 있고 사회는 무감각해지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압제적인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나라를 원한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사회의 모습은 그들의 열망에 비하면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모호하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3 에이커와 소 한마리 분배론(three-acres-and-a-cow distributism)’이나 ‘합스부르크 복원론(Habsburg restoration)’은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게 들린다.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해결책은 뚜렷하게 다르지만, 놀랍게도 몇 가지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두 진영 모두 스티븐 핑커와 같은 자본주의 옹호자들을 반대한다. 그는 일인당 소득과 기대 수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자본주의 비판가들을 배은망덕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비판가들은 더 암울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의 비율이 급증하고,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소위 ‘절망적 죽음’ 또한 전염병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판론을 반영하고,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기

후 변화의 재앙도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인류를 위한 경제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한다.

자본주의 너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정치의 유용성과 한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공의 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 뒤에 숨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의 선을 위한 견해는 도덕적 신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신념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국가를 넘어 종교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틴 헤글룬트(Martin Hägglund)는 그의 저서, “이생(This Life)”에서 사회주의를 ‘세속적 믿음’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러한 신념이 ‘로베스피에르의 이성 숭배’, ‘가톨릭 일체주의’, ‘진보적 대학의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샤리아 법’ 등 뭐라 불러지든 간에 그것이 국가의 칼에 의해 집행되는 순간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성모독적인 대심문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결국 정신적 자유에 대한 대가로 값싼 행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심문관 역할을 하는 신념들이 그들의 진실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두려워해야 한다. 권력은 내면의 자유로운 선택을 힘의 논리로 바꿈으로써 종교를 부패 시킨다. 힘의 논리가 강하게 실행될수록 부패는 더욱 심화된다. 초기 기독교 교부 터툴리안이 주장했듯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인 브루더호프의 정신적 뿌리인 17세기 급진적 종교개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권위있는 종교개혁가들은 세속적인 권력가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이 정화된 복음이라고 믿는 바를 국가의 힘을 의지해서 퍼트림으로 중세 교회의 잘못을 몰아내고자 했다.

그에 반해서, 급진적 종교개혁가들은 보통 사람들의

정의의 위한 풀뿌리 운동에 기반해서 개혁을 이끌어 갔다. 소작농들은 그들의 요구를 현대 유럽의 첫 인권 문서라고 할 수 있는 12조항으로 만들어 냈다. 이 조항에는 잔인한 수준의 세금과 헌금, 강제 노동을 멈춰 달라는 간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들의 요구가 담겨있다. “인간이 사냥을 하고 새와 물고기를 잡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형제 됨을 막는 것이다.”

1525년에 일어난 농민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루터와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은 권력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억압을 지지해주었고, 그 결과 약 10만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교회의 지지를 받은 대량 살상으로 인해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이 태동하게 되고, 무력 사용에 대한 참혹한 교훈을 얻은 급진적 개혁 운동의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비폭력을 주장했다. 당시의 개혁 운동은 농민들이 주장했던 12개의 조항에 기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형제애 공동체로 구현했다. 그들은 의무적인 유아 세례가 아닌 자발적인 성인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의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받아 들이는 것은 신성로마제국 당시 중범죄로 간주되었기에, 그 후 수십 년 동안 약 3천명 정도의 아나뱃티스트들이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은 널리 퍼져 나갔다. 지금의 체코 지역에 있던 아나뱃티스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를 1527년경 형성하기 시작했다. 16세기가 끝날 무렵, 그러한 공동체 정착촌들은 약 100여개 정도가 되었는데, 약 2만명에서 3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았다. 30년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공동체 지역들이 파괴되었음에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후터형제회(Hutterites)라고 알려진 그들의 후손들은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은 지금으로부터 5세기 전 자유와 평등, 형제애의 기독교 비전을 자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고문과 죽음도 무릅썼던 용감한

바로 그 농부들의 후손이다.

쟁기 이번 호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극복한 공동생활을 소망하며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급진적 종교개혁의 신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는 지금 현재 가능하고, 누구든지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는 기독교 초창기부터 존재해 온 비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신약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강조되어 왔다. 이 비전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사도행전 2:44-45)라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공동체 삶을 따른 것이다.

계간 쟁기를 오랫동안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이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스울 정도로 주류 기독교가 다루기 꺼려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세상을 향해 제시하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혼이나 비폭력에 대한 강경한 말씀들과 부와 사유재산에 대한 가르침들을 정중히 무시하며,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만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과장된 설명으로 여긴다. 아니면 수도승이나 탁발승 혹은 선교사와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고 평신도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고 신앙의 영웅들만 따르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자발적인 가난이나 경제적인 희생은 자선사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중산층의 미덕 정도로 대신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제적인 가르침은 이웃과 적에 대한 사랑, 위선에 대한 혐오, 신실함, 성적 정결함, 자선 행위 등 다른 기본적인 명령들 못지 않게 우리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명령들은 홀로 떠다니는 격언들과 같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은 사적

인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즉시 실행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기술했듯이(21쪽 참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진리이다. 사도들과 초기 교회 교부들도 이와 같은 단순명료한 이치를 고수했다.

이런 가르침들의 상호관계로 인해서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가 무너지면(예를 들어 경제적 급진성) 다른 가르침들의 기반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회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나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을 관대하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돕는 공동체가 된다면 신성한 삶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쉽게 다가오고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생활 안에 경제적 불안의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혼 없이 더욱 길게 영위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해 줄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리석은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유재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의 비폭력에 대한 계명도(김은 잘 오지 않더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맘몬(재물)과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 확실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일 뿐이다.

급진적 성향을 띠는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 문화 리더들은 도덕, 정치 또는 신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떠한 도발도 마다하지 않지만, 유독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제자도를 다룰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나눔의 삶은 한계가 있으며, 어느 한 종파에 국한된 논리이고 너무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태도이며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신약성경은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욕망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규정하면서 자발적 가난이나 재산 공동 소유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해는 근원적으로 제자도를



성도의 나눔

초기 아나뱃티스트 지도자 피터 리더만(Peter Riedemann, 1506-1556)은 자신을 구금한 헤센의 필리프 제후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글을 1543년 작성하였다. 다음은 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재산 공유 공동체는 영적·물질적 은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 곧 영적·물질적 은사들이 주어진 것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공동체는 영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서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고후 8:7-15).

오늘날도 여전히 창조 세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어느 것도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창 1:26-29).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고,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창 3:2-12) 사물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쌓는 데 더욱 익숙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은 굳은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점유와 축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롬 1:18-25).

출처: 《피터 리더만의 후타 라이트 신앙고백서》, 존 J. 프리즌, 전영표(대장간, 2018)



공동체는 성령님의 선물

다음은 2012년 쓰여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우리의 믿음과 소명》에서 발췌한 글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세계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연대와 평등으로 하나가 됩니다. 저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 속하고, 내가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그들이 나를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 6:31-33).

첫 오순절에 그러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함께 모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언제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의 연합으로 맺어져 소유와 재능, 삶을 나누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출처: 《우리의 믿음과 소명》, 6(플라우, 2012)

단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명령들을 모아 놓은 목록의 한 일부로 치부하려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신약에서 말하는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경제적인 영역까지 적용되어 나타나는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이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실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삶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다.

지난 여름 브루더호프는 100년간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로 살아온 삶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역사를 통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곳에 있는 친구분들 덕분이다.

브루더호프는 1차 세계 대전 직후의 독일이라는 유례없이 비옥하고 열정적인 토대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 신학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베를린을 떠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해왔다. 처음 시작은 1차 세계 대전의 뿌리인 군국주의를 지지했던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낀 젊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헌장으로 여기며 초기 기독교인들과 아나뱃티스트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와 성녀 클라라, 초기 웨이커 교도, 크리스토프 블롬하르트와 칼 바르트 등이 주창한 종교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농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선구자이자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있던 키부츠 운동에도 영향을 준 구스타프 란다우어(60쪽)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란다우어는 브루더호프가 태동하기 바로 일년 전에 우의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한 세기가 흘렀지만,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다른 많은 교회들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러 나라들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약 3천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것을 공유하며, 5개의 대륙에

걸친 24개의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 것을 선언하며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자축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도 5, 6세대에 걸친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브루더호프는 기독교 공동체의 긴 역사 가운데 최근에 나타난 그저 한 예일 뿐이다. AD 197년 터툴리안에 따르면, 당시 이방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고 감탄했다. 역사학자인 앨런 크라이더가 쓴 책 “초대교회의 인내가 일으킨 소요(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감명을 받은 사랑은 단순한 상냥한 감정이 아닌 서로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행동들이었다. 3세기 그리스도인이자 법률가였던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위대한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회를 형성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섬겼다. 위즈워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사랑 안에 강해진 자들”이었다.

초기 기독교시대를 거쳐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 생활을 시작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역사 속에는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딕도 수도회,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프란체스코회, 중세시대의 발도파, 베긴회와 베가르도회, 모라비안 형제회,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예수회 레독시온 공동체, T. S. 엘리엇 시인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된 영국 리틀 기딩 공동체,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도로시 데이의 가톨릭 노동자회 운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바닥 공동체(communidades del base) 등 다양

한 공동체들이 있어 왔다. 오늘날에는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톨릭 포콜라레 공동체부터 미국 오리온 주에 있는 복음의 아씨데오 공동체 그리고 한국의 예수원에 이르기까지 교파를 넘어선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새로운 세대가 정의와 연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언제나 해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보적 명분에서 또 다른 진보적 명분으로 요동치며 얽은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기독교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러기에 삶은 축복이다. ➤

“위대한 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미누키우스 펠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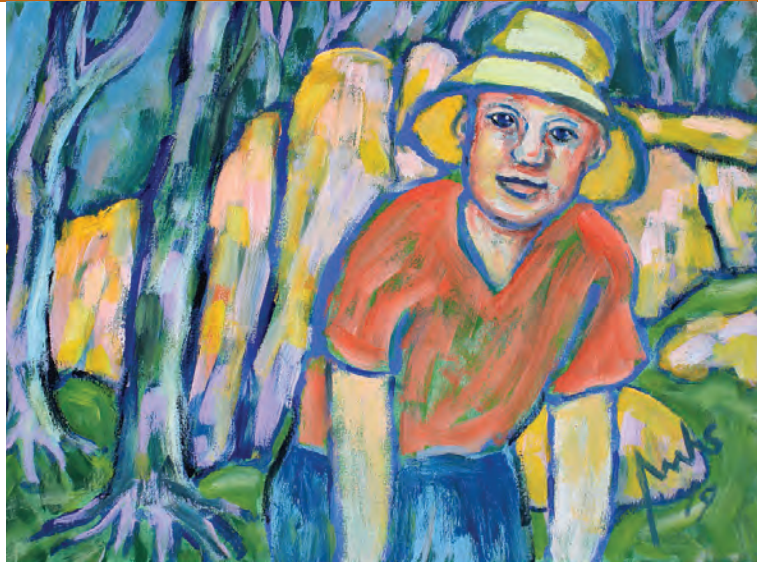
하로
프라이스가
그린
오버펠
렌도르프의
꼬마농부

지난호 '환대의 식탁'(봄 2019)은 마치 바베트의 만찬 같이 참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육류 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도 비건도 아니지만 세계적인 육류 소비, 특히 쇠고기 소비로 인해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 밀림을 파괴하고, 그 소들로 인해 메탄가스가 증가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환대의 식탁에 채식주의자나 비건을 초대해서 그들의 신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더 완벽한 식탁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쟁기 봄호가 다룬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열심을 다하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네이플즈에서 스티브 비세트

계간 쟁기를 내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짧게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 몇 호를 무료로 받아 읽으면서 계간 쟁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오늘밤 정기구독 신청을 하면서 제 팬심을 알리려고 했어요! 계간 쟁기는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몇 안 되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호에서 다룬 음식과 환대에 대한 주제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사역을 축복합니다!

제이콥 윌쉬 (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



하로 프라이스의 작품,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요한네스 마이어와의 인터뷰 '대가뭍 극복하기'(봄 2019)를 읽고: 인터뷰에 실린 올리브 나무를 심는 호주 젊은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위의 "오버펠렌도르프의 꼬마농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일에서 하로 프라이스

지난호와 마찬가지로 '환대의 식탁'(봄 2019)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내려놓으며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정이 함께하는 밥상의 중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족이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연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연습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도 정을 나눌 수 있음을 아이들도 점차 익히게 되지요. 부모는 낯선 사람들이나 좀 꺼려지는 사람들, 외롭거나 친지가 없는 이들, 불쑥 예고없이 방문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같은 중요한 덕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뉴욕 에소푸스에서 주디스 쉐리

편집자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를 환영합니다. 편지와 웹에 올라간 댓글은 적당한 분량과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으며 다른 매체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성함과 주소도 함께 적어 letters@plough.com로 보내주세요. ➡

사진 Stephen Addison, 작가의 허락을 받아 사용

범죄를 흑 날려라

런던 동부에서 불우하게 자란 스티븐 에디슨에게는 범죄에 가담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많은 청소년들처럼 스티븐도 부모의 충고를 듣기 보다는 또래 친구들에 휩쓸리며 일찍이 범죄에 손을 댔다. 그런 스티븐의 인생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뀌었다.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 학위를 받았지만 이웃의 많은 청소년들이 조직폭력배가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걸 보면서 걱정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스티븐은 청소년 단체인 박스 업 크라임(Box Up Crime)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학교와 지역 센터를 두루 다니며 권투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상담한다. 이 단체는 현재 매주 600명 이상의 청소년들과 함께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단체가 활동하는 지역마다 범죄율이 25퍼센트 감소했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스티븐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박스 업 크라임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boxupcrime.org

두유가 막아 선 내전

조이 카우프만

조세프 말리쉬는 남수단에서 피난 나와 우간다에 살고 있는 백만명 난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난민들에게 대두를 두유로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식



‘박스 업 크라임’의 설립자 스티븐 에디슨과 학생

으로 말리쉬는 젖소를 키우기 위해 초지와 물 사용권을 놓고 폭력을 벌이는 부족 전쟁에 응답하고 있다. 말리쉬는 수천 명을 죽이고 자신들을 고향에서 몰아낸 전쟁을 두유가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팜 스투(FARM STEW)라는 단체의 교육 담당자다. 이 단체는 굶주림, 질병,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한 가정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팜 스투라는 이름은 풍요로운 생활에 필요한 8가지 성분을 나타내는 농사(Farming), 태도(Attitude), 휴식(Rest), 식사(Meals), 위생(Sanitation), 절제(Temperance), 기업(Enterprise), 물(Water)의 약자를 모은 것이다. 팜 스투 교육에는 여러 부족들이 모이는데, 젖소와 우유에 대한 애착으로 적이 되고 만 누어 족과 덩카 족도 참석하고 있다. 최근 교육에서 말리쉬는 한 누어인에게 덩카인을 위해 통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교육이 끝날 무렵 모두 모여 한 술에서 밥을 먹고 두유를 마셨다. 많은 참석자들이 다시 교육에 오겠다고 했다. 말리쉬는 참석자들이 스스로 두유를 만들 수 있을 때 자신의 나라에도 치유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farmstew.org



조이 카우프만(공중보건학 석사)은 영양사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우간다에서 진행한 농부에서 농부로(Farmer to Farmer)라는 프로그램에서 일했고, ‘팜 스투’의 창립자이며 대표이다.

‘팜 스투’의 음식
피라미드
교육 중인
조세프 말리쉬



자본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적 탐색 하나



데이빗 벤틀리 하트

자본주의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화해할 수 없다. 신약성서 번역가인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의 주장이다. 그리스도는 부자들의 탐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신랄히 탓하셨다. 예수의 첫 추종자들은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기술로 무장한 시장의 힘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기독교 경제는 여전히 가능할까? 자본주의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I: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상거래는 본질적으로 악마적이다. 상거래는 빌린 것을 되갚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건다. 내가 내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라.”
- 보들레르, <벌거벗은 내 마음>

나는 보들레르가 도발한 질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해 줄 답이 없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내어 이 말의 뜻을 밝힌다면 답변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분명해지리라 본다.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원시적이거나 초보적인 단계를 가리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경제교류를 지칭하며 터무니없이 방대하게 쓰인다. 불과 몇 세기 전에 본격적으로 움튼 시장 경제는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기에 보다 정확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많은 역사가들이 정의하듯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되어 점차 이전 시대의 상업주의를 대체한 금융 관습이다. 1861년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요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이 정의했듯이 자본주의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도, 노동의 결실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거래는 자유 숙련공들의 계약권을 크게 파괴하고 장인 조합을 소멸시키면서, 노동력을 협상 가능한 상품으로 격하시키는 임금 제도를 대규모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절박한 이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18세기 중반 영국의 인클로저 현상(토지 소유가 집중되면서 농민의 임금 노동자화를 촉진시킴-역주) 같은 정부 정책이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임금 노예제나 극심한 빈궁에 몰며 선택권을 점차 제한해 나갔다. 그 결과 경제적 실권이 독립 노동력과 부속 사유지, 소규모 지역 시장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제공해왔던 상인 계층에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본 투자자로 이동했다. 그 결과 완전한 기업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근대 초기의 합동 출자 회사들이 금융투기를 통해 호황을 누리며 거대한 자본을 창출하는 엔진으로 변화했다. 즉,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고 즐기는 순전한 자본 시장, 기회의 게임을 하듯이 투자와 매각을 반복하는 경제를 창출한 것이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즐기듯이 끊임없이 투자와 분배의 순환에 관여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업이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제한된 책임만 지고 무한의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대기업 제도의 발흥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생계수단을 파괴했는데도 마치 새로운 것을 창출한 양 똑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은 음흉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법 이전에 법인의 지위를 누리며 정말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다. (예전에 이런 법적 권한은 대학이나 수도원 같은 '법인' 단체들에게만 주어졌다.) 자본주의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특히 미국에서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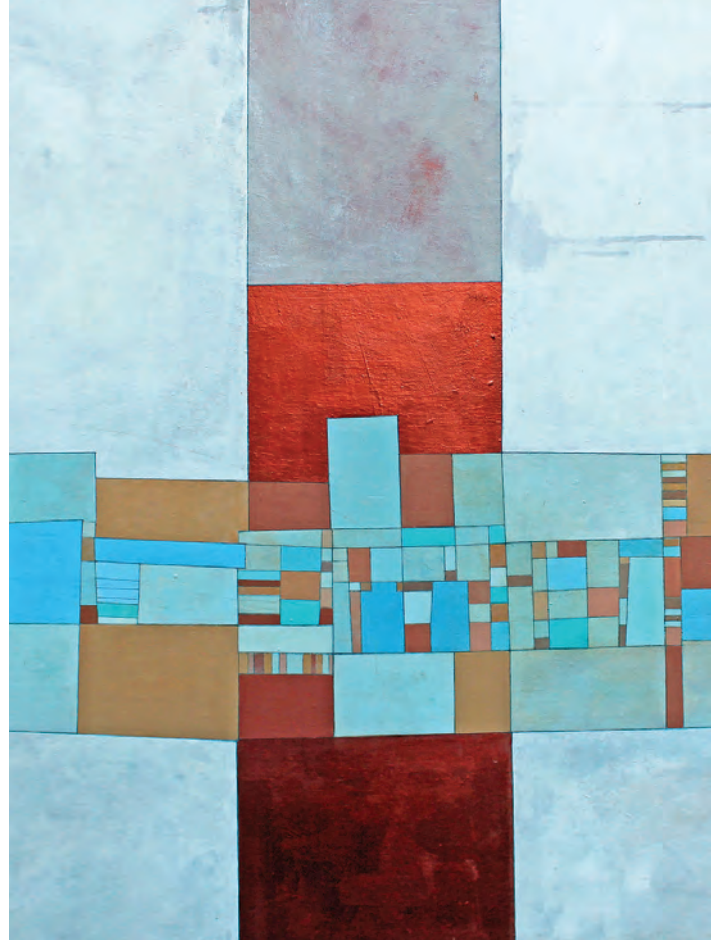
데이빗 벤틀리 하트는 철학자, 작가, 번역가, 문화평론가이다. 최근 저서로는 “신약성서: 새로운 번역(The New Testament: A Translation)”,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과 지옥, 우주적 구원(That All Shall Be Saved: Heaven, Hell, and Universal Salvation, Yale University, 2019)”이 있다.

년 다지 대 포드 자동차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해 최대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요구 받는다. 다른 건 고려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가령 무엇이 옳고 그른 이익인지 따질 필요가 없고, 노동자들의 복지나 이윤보다 앞서는 공익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도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가 사적 자본의 엄청난 집중과 제약 없이 돈을 처분할 수 있는 재량에 의존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물건이나 인적 자원을 전혀 없는 규모로 악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자연적 필요나 심지어는 자연적 욕구를 넘어 사치성 소비 풍조를 조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비주의 문화로 귀착된다. 자본주의 문화는 그저 자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요한일서가 일컬은 '눈의 정욕에 끊임없이 호소하며 새로운 욕망을 충족하려 발버둥을 쳐야만 한다.

그래도 최소한 인정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엄청난 부를 생성하면서 문화와 물질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막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의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극빈자층의 존재를 노동 가치의 비축물료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신용 경제의 축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을 용인하고 부추긴다. 신용 경제는 빈곤한 이들에게 약탈적인 대출과 이자 관행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샘 같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채무자들을 공급하며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한다. 투자 기관들은 그들을 믿고 맡기는 투자층을 위해 서민과 노동자층의 지속적인 파산을 무한한 이익의 원천으로 이용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얻어진 엄청난 수익이 많은 사람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치못해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낙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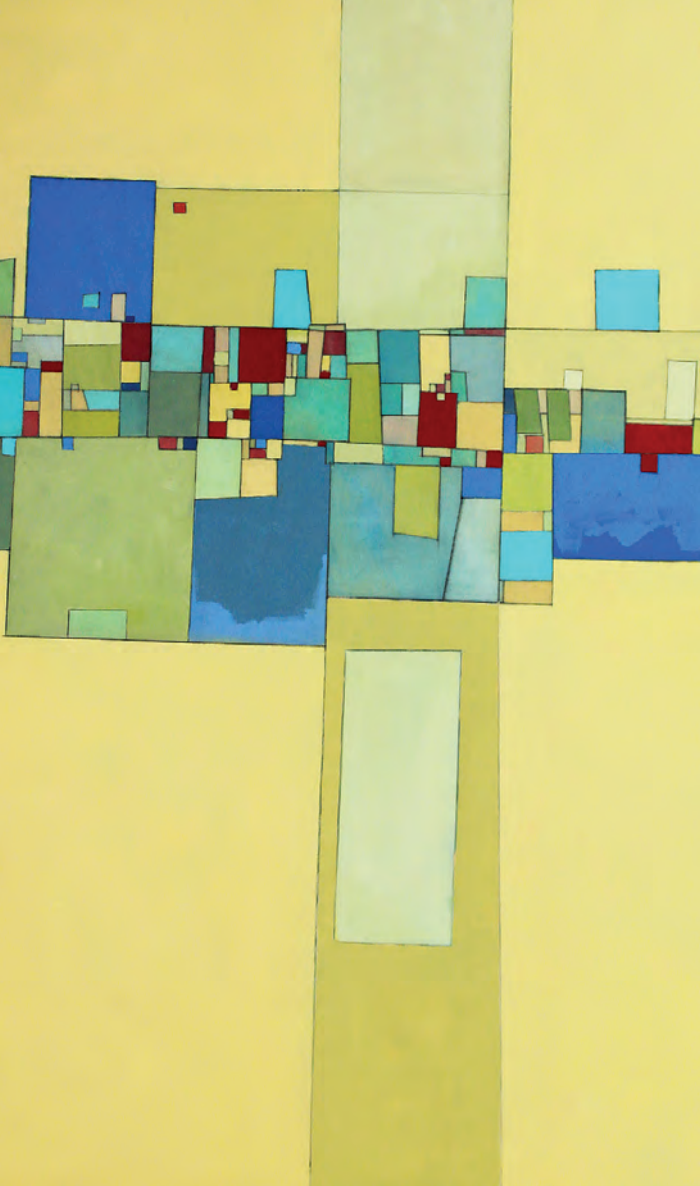
말해 보시오. 그대는 진정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와 이득을 얻으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부요롭게 할 것이 있다면 어찌 당신 문 앞에서 구걸을 한단 말이오. 이 사람은 친구를 찾으러 왔으나 적을 만나게 된 셈이오. 그대가 이 사람의 가난을 해결할 의무는 없을지언정 이 불쌍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사막에서 수확물을 찾는 격입니다.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오,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탓하며"

를 증명해 줄 실제 사례는 없고, 현실은 보통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창조하고 풍요롭게도 하지만, 파멸하고 빈곤케 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자유와 형평성을 장려하거나 반대로 폭정과 부정을 부추기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진보적 자유나 민주

데보라 배트, 도심지 마을

이전 그림: 데보라 배트, 쇠퇴한 시골.



데보라 벨트, 공동체

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도덕성도 전혀 없다. 이 제도는 남용되기 보다는 효율성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작동된다. 선과 악의 구별을 넘는 지적인 도덕 관점에서 본다면 해도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는 악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나는 우리가 자본주의 다음 단계를 논하기 보다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내 관점으로는 자본주의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단계는 없다. 내가 이 부르주아적 기업주의 시장 국가의 승리가, 멈출 수 없는 유물변증법의 합리적 최종 결과에 따른, '역사의 종말'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 논리가 이미

미래를 쟁취했으며 그 지배가 영원무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오히려 나의 이런 신념은 무한한 욕구와 유한한 자원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미적분에 기초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기괴하게 전이된 정신질환 같은 것이다. 결국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자연 질서 안에서 힘을 잃고 황폐화 되어서 파괴와 오염, 모독에 의해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지구는 이미 탄소 배출의 두꺼운 장막에 싸여 중금속과 독소의 홍수에 시달리며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대기에 잠겨 있다. 그리고 나는 생존 본능도, 건전한 윤리적 결과도, 자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영광스런 창조 세계에 대한 자발적인 숭배 같은 그 어떤 반격도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종말을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란 자체의 물적 토대를 영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휘발성의 물질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즉 완전한 소비 체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건 상업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지극히 추상적 허무주의에 기반한 소비 체제인 것이다. 이 허무주의는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풍부함을 비물질적인 절대 가치로 바꾸려고 전력을 쏟는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삐딱하게 서서 우발적이고 반사적인 힘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기에 세상을 고갈시키기 전까지는 자본주의가 지닌 에너지가 고갈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일 수도 있겠다. 본질적으로 선한 잔여물들의 마지막 안간힘을 짜내서 피타고라스적 영원 불변함을 지닌 시장의 가치로 넘기려 드는 그런 승리 말이다. 그러니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자본주의 너머에서 나와야 한다.

II: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미래를 탐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미래가 늘 공허하고 동일한 시간이라는 건 아닙니다. 매초마다 메시아가 들어오실 수 있는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건전한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갈망하는 것이 비슷할 것이다. 역사의 인식, 행복한 무정부주의, 순수한 공산주의, 넘치는 풍요 덕에 소유욕이 제약받지 않는 인간 세상, 기쁨과 편의를 주는 것들이 천지이고, 모든 것이 이성적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초월적인 세상 같은 곳 말이다. 심지어 공급자 측면의 경제학을 믿는 완벽하게 순진한 신자유주의자도 그 내면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경험과 인식을 초월한 심오한 무정부적 공산주의자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의 내면 깊은 어딘가에 프트르 크로토프킨이 잠자면서 탐욕과 폭력이 제거된 세상을 꿈꾼다. 모든 사람은 지상낙원이었던 에덴이 회복할 수 없는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의 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에덴은 역사의 변증법적 문제가 아니며, 유한성이라는 명백한 모순에서 작동하는 초자연적 합리성의 최종 산물도 아니다. 저기 '너머'에 있는 곳이다. 에덴은 오직 현재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해온 선한 창조 질서의 추억으로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저주로만 기억되며 지속가능한 희망은 부수적일 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모든 것이 다 파멸되기 전에 자본의 질주를 멈출만큼 강력한 역사의 힘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현대 사회의 모든 정치적 사상이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

문이다. 물론 교회의 사회 제도적 역사에서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예리하게 물어 왔다는 데서 작은 희망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신앙의 함의를 얼마만큼 인지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이 역사에서 이미 존재했고, 특정한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여러 면에서 요한복음서는 세상의 온갖 구조적 죄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종말론이 거의 완벽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역사를 관통하며 모든 것을 밝히시는 빛이며 그 빛을 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빛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따라서 그를 거부하는 것은 악마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면면히 드러나게 되고 내면 깊이 내린 결심들이 공개되며 우리가 만든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역시 마지막 때의 비유를 들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한다. 마태복음은 비참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 받고 박탈당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옥을 자신의 집으로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밝힌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불에 의해 증명될 것이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불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서는 유일하게 심판대에서 완전히 불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실천이 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자본주의는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창조물을 최대한 남용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적인 부를 생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에 대한 옹호 못한 집착뿐만 아니라 부를 얻고 유지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셨다. 이는 세 개의 공

관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되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낙타와 바늘귀에 관한 비유가 좋은 예이다.

이는 복음서 어디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들을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눅 4:18).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소식은 확실히 암울하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이,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이,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며 울 것이다” (눅 6:24-25).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했듯이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그래서 지금 너는 고통을 받는다”(눅 16:25).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마 5:42), 한 손이 아낌없이 퍼준 일을 다른 손이 몰라야 한다고 하셨다(마 6:3). 단순히 물질에 너무 집착해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를 쌓아 두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시며, 대신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만 허락하셨다(마 6:19-20). 그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시며(눅 12:33)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눅 14:33). 마리아가 고백한 복음서의 구원 약속에는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나온다(눅 1:53). 야고보의 말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들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

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 5:1-6)

간단히 말해서 초대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는 사도행전이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서신에 나타나 있다. 이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신앙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나는 최근 새로운 신약성서의 번역을 준비하면서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단어와 관련 용어를 공산주의 같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단어의 적절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수로 초대교인들이 행한 일들을 20세기의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국가와 연관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 단어가 모든 차원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1세기의 초대교인들 가운데 분명히 실행되었을 도덕, 영, 물질적 차원의 나눔을 전적으로 담고 있다. 그들이 전파한 복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개인적 부와 사유재산의 추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대교부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초대교회가 주창한 정신은 고립된 수도회 운동에서 지속되었고, 이따금 프란치스코 수도회 운동, 러시아정교회의 무소유 운동, 가톨릭 노동자 운동, 브루더호프 등 같이 지역적 ‘복고’(purist) 운동으로 분출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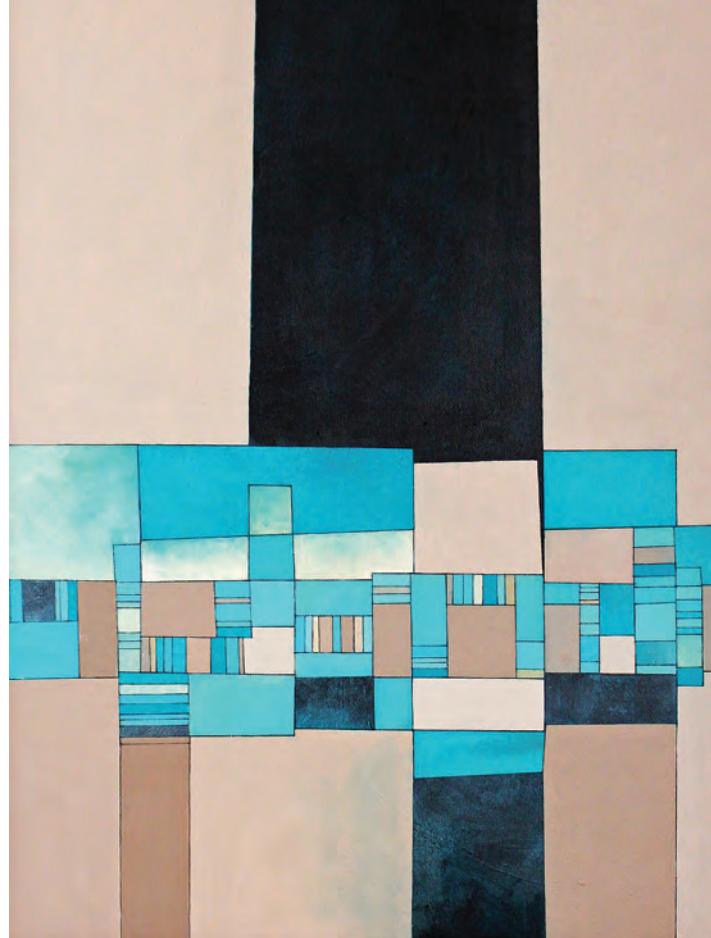
물론 작은 공동체들이 일정한 기독교 집단주의 형태로 헌신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본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공동생활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정치 질서로부터 고립된 동시에 의존해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상적 기독교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인 양 오인될 때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들

이 사회에 보내는 예언자적 메시지가 대부분 큰 교회 신자들이 성직을 신성시하는 것처럼 특별한 천직으로 여겨지거나, 일부 극소수만 할 수 있는 대단하고 특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고, 실용적 정치 모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 안에는 큰 위험이 도사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의 코이노니아는 나란히 놓인 그럴듯하고 비슷한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윤리나 선택적 기호에 따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는 후퇴가 아니라 혁명에 대한 부르심이며 최후의 심판으로 역사에 다시 또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이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삶의 형태로 물려주신 빛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사실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 나라는 역사의 오랜 진행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침입하듯 다가온 것이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다. 최후의 말씀도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이외에 사회 정치 경제적 질서를 꿈꾸거나, 기독교적 사랑의 무정부주의 외의 공동체적 도덕을 갈망할 자유가 없다.

물론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최소한 현실의 실천 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이 글의 처음에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쓰는 용어의 뜻을 잘 밝힐 수는 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정치 사회적 현실이 기독교인의 양심에 반감을 일으키는 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도덕적 선인 것처럼 가장하며 끊임없이 부채질 하는 소비 문화, 수단과 방법, 결과를 가리지 않고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에게 굴종하는 법률 제도, 잔혹함과 분열, 국가 정체성 편향의 정치, 이것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가상의 경계선을 긋는 획책 같은 것 말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선의

수단을 최대한 이용해 공공선을 이루는 비전이다. 사유재산의 불가침 권리를 뒷받침하는 법과 정의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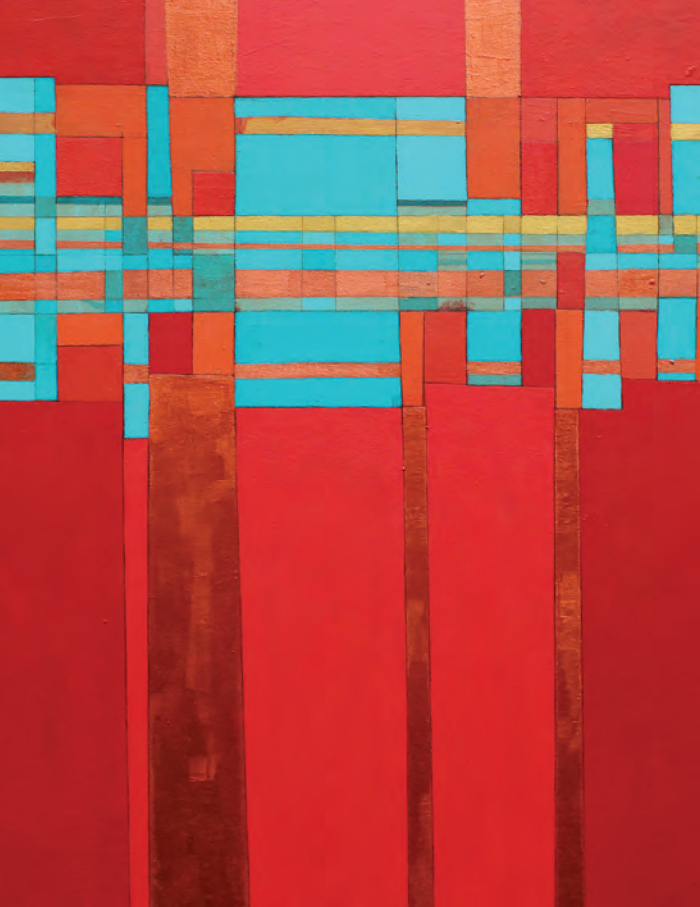


당신은 얼마나 더 광포한 욕심을 부리려는가? 그대만이 홀로 이 땅에 산단 말인가? ... 태초에 세상은 모두의 것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땅을 독점할 권리는 어디서 왔는가? 자연은 부자를 알지 못하니 모두 자연에서 난 자들은 가난하게 태어났다. 옷, 금과 은, 음식과 음료, 덮을 것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으니, 자연은 자신의 아이들을 별거벗은 채로 무덤으로 불러 갈 것이며, 아무도 그곳에 한치의 땅도 가져갈 수 없으리라.

밀라노의 암브로스, "나뭇에 대하여"

바실리오 대제, 니사의 그레고리, 밀라노의 암브로스, 요한 크리소스톰과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

데보라 배트, 주택 10번지



취해서 막대한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적 정치를 추구할지는 (최소한이나마 사회의 모습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물질주의적 사고에서 깨어날 때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회보다도 진정한 공산주의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인 사회를 궁극적으로 희망할 자격이 있다. 초대교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동시에 두 사회의 특성을 성취했다. 그런 사회를 진정으로 상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라. ➤

다른 사람의 옷을 뺏은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요.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도 도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가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빵은 저 배고픈 자의 것이며, 잘 개켜 둔 옷들은 헐벗은 이의 것입니다. 신지 않아서 좀 쓸어가는 신발은 신 없는 자의 것이며 땅에 묻어둔 은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의 것입니다.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오, “내 공간을 무너뜨리겠소”

데보라 배트, 주택 10번지

침을 근원적인 진리로 여겨야 한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귀속되어 있으며 굶주린 사람의 빵, 헐벗은 이들의 옷, 가난한 사람의 돈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

종교 대 세속의 대결은 잊으라.
이 싸움은 mamon과 인류가 벌이는 것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독일의 혁명 5년 뒤인 1924년 10월, 쟁기의 초대 편집장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자신의 작은 광산촌에서 노동자 청년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 일부를 여기에 실는다.

페르시아의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서로 대항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 종류의 대항하는 힘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영혼과 물질처럼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뗄 수는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을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모호함과 명쾌함, 밤과 낮의 대립처럼 서로 도

전하는 두 개의 극으로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상주의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싸움의 한편이고,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물질주의자들이 다른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분류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밑바닥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싸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상주의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질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한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머리에 대한 공부

이고 악한 자가 다른 한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선하고 물질주의적인 삶은 악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참으로 그 믿음을 두는 곳은 어디이며, 종교적인 삶이 신을 만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거짓 신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아닌 세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신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항하는 세상 종교의 신이며,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에 적대적인 이 시대의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의 본질은 마음이 없는 노동, 사랑이 빠진 사업, 영이 없는 조직, 기쁨을 대체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며, 경쟁자를 짓밟고 사람들에게 사취한 사유 재산을 우상화합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시대의 신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은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가장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저술 속에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세상 신은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더 이상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다가올 시대를 다스리실 예수님은 이 영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는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mammon은 무엇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영을 폭로하시면서 다른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mammon’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며 “부정한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요 8:44; 마 10:1). 이 영의 본질은 물질주의이고 직업은 살인이며 성질은 거짓말

이며 생김새는 음란입니다.

도덕주의자에게는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서로 무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그것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mammon주의는 빼앗고 소유하고 즐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mammon, 거짓, 살인, 음란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명칭들이 동일한 하나의 영, 즉 동일한 하나의 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이 신이 세상에서 휘두르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자”(마 6:19; 눅 18:22). 재물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해방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고 싫증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사람들 사이의 사귀를 소멸시키고 불의가 일어나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눅 6:20, 24). 재물을 나누어주면서 참된 사귀를 얻으려면 그리고 불의에서 돌아서면서 친교를 발견하려면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 당신의 소유를 모두 나누어주면서 마음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친교와 공동체의 길을 가십시오. 영혼을 가로질러 물질적인 것에도 스며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를 구하십시오. mammon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상품과 돈

‘mammon’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선 돈을 떠올립니다. 사실 돈은 mammon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mammon이란 재물에 가치를 두면서 인간관계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관계이며, 상호작용이며, 주고받는 것이며, 오

고가는 것이며, 날마다 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과 의지의 친구, 지식과 창조적인 일의 친구, 신앙과 소망의 친구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생명의 친구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돈이 끼어듭니다. 오늘날 세계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돈은 친구의 숨통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생명력 있는 상호 교환과 서로 돕는 봉사가 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한 개의 동전이 되어버리고 한 장의 지폐로 변해 버립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삼켜버리는 수단이 될 때 돈은 악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지닌 악마적 성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격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금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교합니다. 사람들은 물품을 생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전부 돈 속에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과 봉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물질주의적인 관계로 변하고 친구의 영이 사라지면서 정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날 사업장에는 돈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규정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주주들에게는 이런 규정된 관계조차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주, 주식회사, 이사회, 경영진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둘 간의 상호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책임을 이사회에 미루고, 이사회는 투자자들에게 미룹니다. 돈과 손익 계산과 급여 수치가 가장 우선시되기에 노동자는 단지 급여 번호와 소득 수치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나처럼 슬피 우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력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진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춥니다. 그들 때문에 동일한 분노가 모든 선지자들 안에 불붙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광인들의 희생물이 되어 있습니다.”

- 조로아스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맘몬, 즉 사탄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로리히, 지혜서

공산주의가 답인가?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씨시의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고 돈을 거부한 인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돈을 거절하는 성인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 고린도후서 4:3-5

니콜라스 로리히, 그림자

사람들을 맘몬주의 안에 미혹시키는 돈의 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돈이나 돈의 제거냐의 문제가 참되고 본질적인 문제의 유일한 표징이 됩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정복되기는 하지만, 맘몬 신이 그저 돈이나 사유재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돈 없이 산다거나 공동 재산을 가진다고 해서 사랑이 지배할, 다가올 나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맘몬은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도 존재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에게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의

음식과 의복, 집의 필요가 바로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몰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생존경쟁에서,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 삶은 물질적이며, 자기보호 본능과 번식의 본능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로 맘몬주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옷과 잠자리와 성(性)의 필요성 위에 상호 관계를 세우는 것은 영의 물질화 위에 관계를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시위에도 위대하고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의 주 동기가 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경제적 역사 해석, 잉여가치론, 신탁을 통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 기업으로의 이행이 아닙니다. 집단적 소유라는 목표 역시 아닙니다. 반대로 이 운동의 원동력은 정의가 올 거라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이며 이 연대의 승리를 통해 물질적인 것까지 확장되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숨겨진 힘은 물질이라는 이름의 정신적 반란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입에 담기만 하고 물질에 욕망을 건 소위 ‘영적인’ 사람들의 맘몬주의에 대한 집단 공격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친목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정당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정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자본가들에게서도, 유물론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찾고 정의로운 미래를 믿는 마음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감한다면 조로아스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물질주의보다 더 강한 선한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삶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가 순전히 내세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모든

것을 어느 날 천국에서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관에 들어가 드러눕는 수도승처럼 오직 죽음의 시간만을 고대하는 저 세상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인간의 해방이며, 죽음이 우리의 구원책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부끄러운 생존의 죄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입맞춤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저주 받은 육신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순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낙원으로 옮겨놓는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큰 구분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 사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과 영 사이의 구분이 아니며 유형과 무형 사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모든 영과 육체에 적용되며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적용됩니다. 어느 육체에서나 하나님과 마귀는 활동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활동해 왔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영이 어떻게 해야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 안에서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매 순간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불의의 세상 영인 맘몬을 어떻게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대해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저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 세상을 수상쩍게 바라보는 유혹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고유의 정신 속에서 세상과 흠과 땅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사는 원리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진리, 순결 그리고 땅 위의 노동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통치권은 이 세상에 만발해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상호 관계 안

에서 꽃피는 정의와 진리와 순결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기쁨이 이 지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가지게끔 하십시오. 땅과 노동과 물품의 분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취주시며 비를 내리십니다(마 5:45).

이것은 먼 곳에서 일어날 미래의 유토피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 다가올 나라에 대한 확실성은 현존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올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며 그의 영은 모든 사람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성스러운 섬광이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습니다. 시인 쉴러는 그의 <환희의 송가>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겨안을 형제 사랑을 환희에 찬 기쁨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간의 차이점들이 아무리 뚜렷하게 부각 되더라도, 여러 정치적 당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확신, 친교를 파괴하고 믿음을 좌절시키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의 기쁨과 정의의 친교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강의에서 따온 것으로, <소금과 빛> (쾨기, 2007)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1883-1935)는 독일의 신학자였고, 브루더호프의 공동 창립자이다.

맥도날드 테스트





미국의 뒷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크리스 아나디 인터뷰

한때 월스트리트 은행가였던 크리스 아나디는 3년 간 미국을 횡단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방문했다. 브롱스로부터 오자크를 거쳐 LA 동부까지 여행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만든 매력적이고 따끈따끈한 사진 에세이집 “품위(Dignity)”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공유했다. 계간 쟁기의 피터 맘슨이 크리스와 함께 패스트푸드점, 점포 교회, 능력주의 그리고 걸인에게 현금을 쥐도 되는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왼쪽 사진: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밀집한 메인주 루이스턴의 고교 축구 팀(왼쪽), 루지애나의 맥도널드, 빙고 게임의 날(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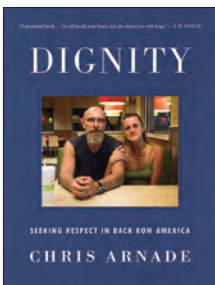
쟁기: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크리스 아나디: 이 일은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명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 은행의 증권 거래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끝에 이제는 세상이 어떤 지를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뉴욕시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속해 있던 사회 집단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 중 하나가 헌츠 포인트였는데, 이곳은 마약과 매춘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사우스 브롱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냈죠. 노숙자들, 성매매 노동자들, 마약 중독자들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2015년, 저는 무시 당하거나 평판이 안 좋은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나아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메인주의 루이스턴이나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커스필드, 텍사스 주의 엘 파소와 같은 곳들 말이지요.

그때 주행한 거리가 24만 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이랄까

요. 헌츠 포인트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시작부터 불리한 것 투성입니다. 마치 법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이 전부 이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 사는 동네(Upper East side, 뉴욕 맨해튼을 말함 - 역주)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20년 간 뉴욕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고,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제가 보기에 이 동네는 끔찍한 가난과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도 사정이 똑같은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는데요. 첫 번째 해였던가 두 번째 해였던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이 되면 저는 카메라를 챙겨 거칠기로 유명한 이웃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직장을 그만 두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그때도, 지금도 이 일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아주 이기적이죠? 하지만 저는 월 스트리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헌츠 포인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안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미주리 도심을 방문하셨을 때 지역 주민들이 “크리스탈 메스(crystal meth, 필로폰 마약류)에

크리스 아나디는 플로리다에서 성장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재직하다가 프리랜서 작가이자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타임즈, 디 애틀랜틱,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다. 새 책 “품위: 미국 사회에서 뒷줄로 밀린 이들로부터 품위를 찾는다”는 2019년 6월에 Sentinel에서 출판되었다.



대해 쓰려고 왔구면.” 하고 인사를 건넸다면서요? 어떻게 가난한 동네를 다룬 책이 ‘구경꾼’의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사람들은 이걸 ‘빈곤 포르노’(가난에 대한 연민을 이용하는 매체-역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는 빈곤 포르노가 조금 더 필요해. 호화 포르노는 충분하거든”이라고 대꾸합니다.

물론 이런 지역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쓰는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방법과 의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지역에 갈 때 사전에 어떤 정보도 읽지 않고 접근하곤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켄터키주 프레스트너스버그라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한복판에는 맥도날드와 월마트가 입주해 있는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매일 거길 갔는데, 야외 피크닉용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한 신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상점에서 야근 교대근무로 일을 했더랬죠. 대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 후로 12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응답이 왔

습니다. “그래. 어디 사진빨 잘 나오게 한번 찍어 보쇼.” 우리는 서로 답소를 나누었고, 그가 몇 가지 명대사를 날려서 함께 웃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이런 얘길 하더군요. “프레스트너스버그가 얼마나 마약과 중독자 천지인지 그런 얘기만 쓰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들인지 좀 써 봐.”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고자 했던 동기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역마다 사는 건 달라도 품위에 대한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여행 도중에 800개의 맥도날드 식당을 방문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죠?

예전에 증권거래인으로 잘 나갈 때는 맥도날드를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민망스러운 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헛스 포인트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늘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그 지역에서 드물게 제대로 작동하는 몇 안 되는 공공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헤로인에 중독된 노숙자들과도 가까운 친구가

인디애나주
맥도날드의
손님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부분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씻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죠. 그곳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구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쉬면서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값싼 음식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윤리적으로 그 음식들을 존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맥도날드야말로 실제적인 지역 정서가 살아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맥도날드가 사실상 지역의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심 지역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는 문제투성인데다가, 정부 서비스는 실패했습니다. 비영리 기관들이나 민간 부문들이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반면, 맥도날드는 여전히 몇 안 되는 열린 장소 중 하나이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며, 조명이 켜져 있는 곳입니다.

결국 저는 일명 ‘맥도날드 테스트’를 구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책의 넓은 주제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앞줄과 뒷줄, 그러니까 내가 한때 속해 있던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학군에 공공 서비스가 갖추어진 특권층과 그 외 모든 사람들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맥도날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 그들의 대답은 대체로 그 사람이 앞줄에 속했는지, 뒷줄에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反) 맥도날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물질주의적인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왔던가요? 이러한 회사들의 관심이라곤 지역 사회에 파고 들어가 돈을 벌고 빠지는 것이죠. 물론 맥도날드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맥도날드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공동체 정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교 모임을 너무나 열망한



위스콘신주
밀워키

나머지 상거래 장소를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내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노인층, 여성 노인층, 성경공부, 체스 게임 모임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방문하셨는데, 무신론자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분명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층 더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처음엔 맥도날드에 가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교회에 갔더랬습니다. 그 동안 저와 대화를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종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든, 이슬람 사원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교회도 맥도날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교회는 조명이 켜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대체로 교회는 점포들이 있는 곳에 자

리잡았는데요. 판자로 덧댄, 버려진 건물들이 늘어진 거리를 가보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관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디다.

제 책에는 성공한 사례 이야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즉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해낸 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지못해 교회를 인정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나서 완전히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면서도 흔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성매매자들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더라고요.

크랙 하우스(코카인을 판매하는 밀매소-역주)에 가 보면 성경이나 쿠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입니다. 구제 사역도 그 일부인데 종교적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성서 내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려는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 교회들은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성서에서 실패의 수용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인식과 우리는 모두 타락했으며 실제로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존재합니다. 만일 당신이 크랙하우스에 살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 세계의 거대한 불의를 본다면, 이것만이 세상의 전부인양 여기는 건 전혀 호소력이 없습니다.

부유층 출신이고, 교육을 받았으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의 증거로부터 뒷걸음치며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살면

서 죽음의 운명과 실패와 비천함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켄터키주
시골의
쇼핑 플라자

여행이 어떻게 성공과 능력주의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켰나요?

우리는 교육을 잣대로 서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류층조차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놀림감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에 따른 보상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를 혐오하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단히 물질주의적이며 대학 학위 같은 증명서를 이상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많은 증명서를 땀으로써 정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것이 지닌 문제는, 비록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돈을 버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쉬울지는 몰라도 훌륭한 부모 됨의 가치, 고

향을 등지지 않고 평생 기여하기로 정한 결심의 가치를 놓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 가치를 아예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글을 쓰기 위해 맥도날드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매일 밤 그곳을 찾아오는 한 젊은 여성을 알게 됐어요. 한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여길 매일 밤 오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서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지분을 못하거든요.” 그녀는 근처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신도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좋은 학교에 연락해 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섯 식구의 장녀였고, 가족들의 통역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에 따르면, 그녀는 기회를 건어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말일까요? 가족을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했는데 말이죠.

네바다주 리노에서 아프리카계 십 대 미국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그 대신 지역의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가 12년 동안 빠져 있던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 금주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위해 그 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 되고 싶어합니다. 장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어떤 것이 배우기 가장 힘들었나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헨츠 포인트에 살고 있던 마약거래업자들과 성매매 노동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제가 돕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인 엘리트의 현실은 노동자 계급의 현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디로 쇼핑하러 가느냐, 누구와 교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거하면, 그러한 요소를 분리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지식인 엘리트는 노동자 계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양방향의 문제이지만, 먼저 그러한 현실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은 교육받은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월마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월마트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한 도시의 이주민 공동체를 알고 싶다면 월마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지만 그들은 보통 새벽 2시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월마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대입니다. 많은 월마트들은 사람들에게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에 집 없는 사람들이 월마트 쇼핑센터에서 차를 세워 두고 잠을 자고,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마트들이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지식인들은 그러한 세세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뒷줄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가족, 장소, 신앙이지 경력이나 증명서가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간극이 갈수록 더 커져서 두 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계층의 언어를 통역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민 문제는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 정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민이 문화적 정체성을 흐리고, 공동체 특히 노동자 계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은 정말 가장 잘못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이러한 도시에서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민 정책입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은 1998년까지 백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정착한 이후로 지금은 15%의 흑인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도심지에 정착했고, 그 도시의 일부를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수십 년을 지낸 남부 출신인 저로서는 작은 남부 도시를 방문해 번성하는 멕시코계 미국인 공동체를 알아가는 일이 종종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텅 빈 지역에서 가족 소유 식당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도시의 빠른 변화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두려운 요인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강력한 지역 정체성 정서를 간직하고 있던 공동체들이 갑작스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공동체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쉽사리 희생양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죠. 루이스턴에서 저는 백인 노동자이자 베트남 전쟁 참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8구역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매주 무료 급식소에 가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절반이 소말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들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가 이런 심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민은 쉬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긴 싫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한가지가 인종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는 끔찍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도 없으며 줄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발전된 도시가 종종 가장 인종차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백인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한 인종차별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조적으로 덜 드러나는 엘리트 계층의 인종차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구획법의 문제로, 가장 좋은 학교들이 있는 곳이 어디며,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어디가 높으며, 좋은 직업을 구하기 용이한 곳

사스 주
엘파소의
미-멕시코
국경에서
274미터
떨어진 곳



알라배마주
의 셀마, 일
용직 노동자

이 어딘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보적 정치로 유명한 밀워키를 방문해 보니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도시의 좁은 지역에만 살도록 제한되어 왔고, 지금도 대체로 그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미시시피 같은 곳에서 온 이주민들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오랜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분열된 남부에서 성장한 후 북부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소.” 밀워키는 이미 1세기 전에 미국 의회에 사회주의자들을 선출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인종차별은 다르다오. 남부에서 인종차별은 노골적이었지요. 여기 인종차별은 당신 등 뒤에 있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임금 직업에 갇혀 있고, 빈민 지역에 갇혀 있으며, 젊은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높은 장벽이 앞에서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흑인 시민권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앨라배마주 셀마를 서술한 것인데요. 아름답게 간직되어 왔던 역사적 기념비인 1964년 셀마 행진이 어떻게 실패한 주택 계획 탓에 잊혀지는지를 쓰셨습니다.

저는 셀마를 사랑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셀마에도 멋진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은 작고 제한적입니다. 그곳의 대다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권리가 박탈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셀마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거나 마약을 공개적으로 또는 태연하게 거래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셀마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치 활동으로 무언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은근한 신랄함과 냉소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앨라배마주는 흑인들이 투표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흑인들이 투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한 거지요. 오늘날 쉐마의 현실은 1960년대 시민권 승리가 주로 상징적이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하셨는데요. 부정적 삶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품위를 지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보통 사람으로 대해 주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 깨끗한 음식이 필요하다면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누군가 병원에 가야 한다면 그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음, 내 주변에 노숙자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세요. 순수하게 그들을 초대해 커피 한잔을 대접하세요. 공통 관심사가 생긴다면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억지로 친한 척하지 마시고요.

제가 배운 실천 행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2~3개월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기꺼이 대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위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특히 벼랑 끝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지갑에 5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다닙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종종 웃기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갑에서 5달러짜리로만 된 천 달러 몽치를 꺼내 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마약은 9달러입니다. 마약을 사기에는 부족한 돈이죠. 누군가에게 5달러를 건네줬는데 4달러를 더 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뻔하죠? 그래서 저는 그

들에게 맥도날드로 가서 식사 한끼 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신 책을 읽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폭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삶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헌츠 포인트에서 한 마약 중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밀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실종되었을 때 몇 주 동안 찾아 헤맨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뉴욕시에서 서류나 신분증이 없이 죽으면 보통 하트 아일랜드(Hart Island)로 보내집니다. 그곳에는 수백만의 시신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합판 상자에 누워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라이코스 섬 감옥 수용자들에게 의해 매장될 것입니다. 무덤을 방문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밀리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금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할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트 아일랜드에서 합판 상자에 안치된 채 매장되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훨씬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추억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무덤에서 밀리의 시신을 발굴해서 제대로 매장하도록 도와주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인가? 이미 죽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밀리의 노숙자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찾아가 볼 수 있는 기념비와 묘비가 있으니 그녀에 대한 기억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숭상하지는 맙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웃 동네에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합시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존경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

인터뷰 진행 피터 맘스, 2019년 4월 30일.

산상수훈에서

“

너

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썩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썩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

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에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마태복음

사도행전에서

“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 복음 전도자 누가



워킹 걸

노동 착취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마리아 헨지펠트

베트남
박장성의
의류공장
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
(2015)

여성의 파워가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당당한 그녀들’(You-go-girl)이라는 메시지는 신발부터, 바디워시, 자동차 등 모든 물건을 파는데 적극 이용되고 스포츠 시장에서도 제대로 먹힌다. 나이키는 지난 2월 ‘미치도록 꿈꿔라’(Dream Crazy)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는데, 시몬 바일스, 세레나 윌리엄스, 메건 라피노 등 세계적인 여자 운동 선수들이 등장해 매우 감동적인 목소리로 “여자가 마라톤을 하면

미쳤다고 한다. 여자가 복싱을 하면 미쳤다고 한다. 여자가 덩크슛을 하면? 미친거지. NBA팀의 코치를 한다. 제 정신이 아니다. 여자가 히잡을 쓰고 경쟁하고, 기록을 갱신하고, 연속 1080도 회전을 성공하거나 23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아기를 낳고 복귀한다고? 미쳤군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나이키가 이런 류의 캠페인에 열을 낸 지 꽤 됐다. 사실 나는 수년 전 나이키의 여권 신장 프로그램에 대해

작가 마리아 헨지펠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알게 되면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나이키의 자체 자선 기구인 나이키 재단(현재는 나이키 커뮤니티 임팩트 기금)은 우간다, 에티오피아 같은 세계 빈국을 대상으로 한 여권 신장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중이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나이키는 여성 단체와 관련 단체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다. 그런데 이 나이키가 1990년대 중반 당시 해외 공장을 광범위하게 악용하여 페미니스트들과 노동 운동가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 회사란 말인가? 지금도 나이키 운동화와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은 어떨까? 이 여성들은 얼마나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고 느낄까? 2016년 어느 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이키의 겉파워 이미지와 나이키 광고에서 뽐내던 자유와 여권 신장을 부정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2016년 1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나는 하오와 하오의 동료 세 명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하오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제일 큰 도시인 호치민 시에 인접한 공업 지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오가 사는 방 밖에서 통역과 함께 만났다. 우리는 바닥에 동그렇게 둘러앉아 나이키에 운동화를 공급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얘기했다.

그해 1월 나는 18명의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다섯 곳의 각기 다른 나이키 공급업체에서 근무중이었다. 하오의 이야기는 이들이 겪은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오는 긴 근무 시간과 과도한 작업 압박에 시달렸다. 작업이 너무 늦거나 하자가 있으면 일상적으로 굴욕을 당했으며 쥐꼬리만한 월급에 겨우 맞춰 살아가느라 애써야 했다. 월말이 되면 하오는 날아오는 청구서를 처리하느라 종종 돈을 빌려야 했다. 하오는 “빚을 갚으려고 점심 시간에 틈을 내어서 복권을 팔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저희 사장님에게 들키면, 절 해고할 지도 몰라요.” 하고 덧붙였다. 하오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지만, 돌볼 여력이 없어 베트남 북부에 있는 친가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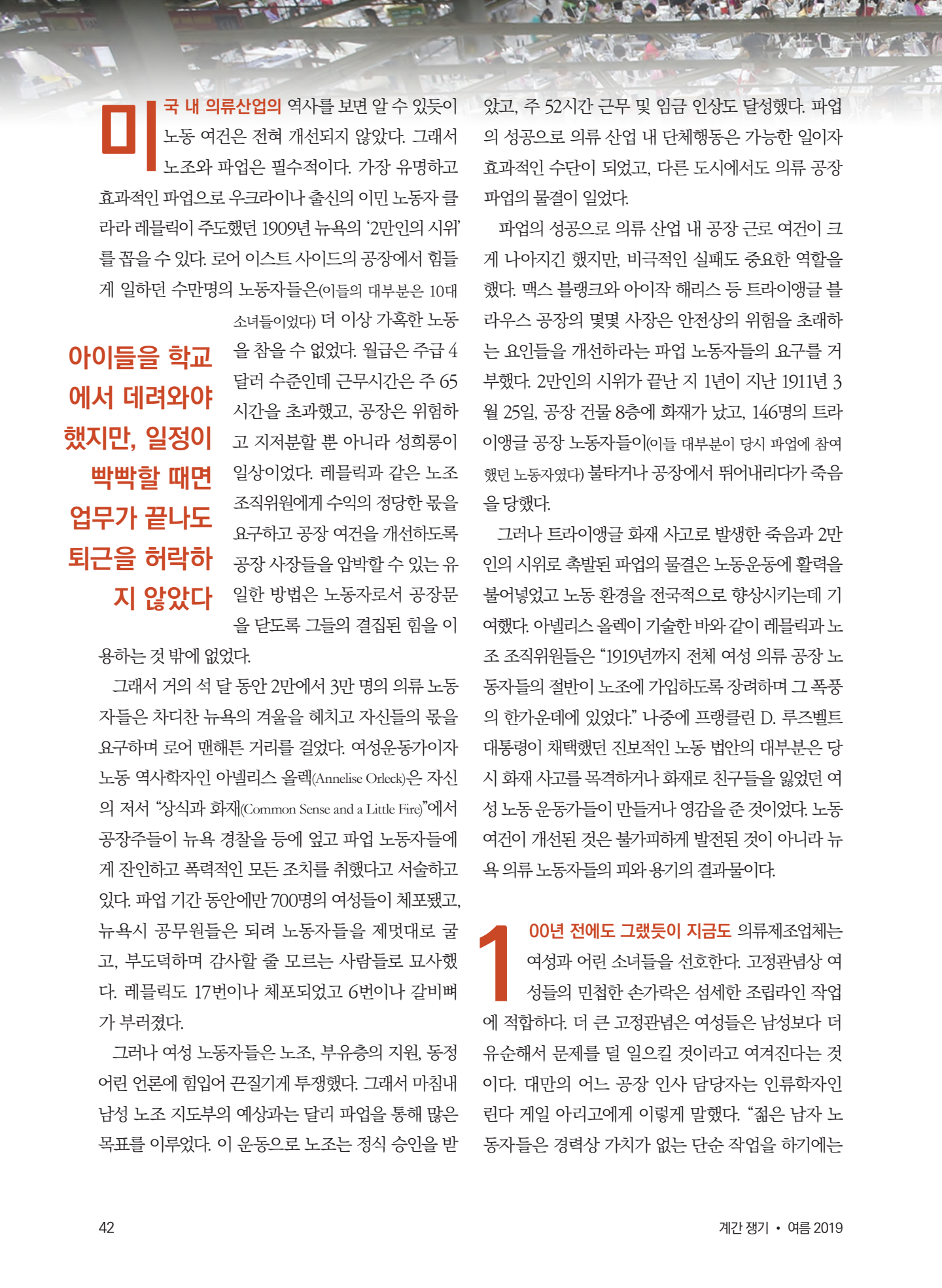
작업장 내 현실은 여권 신장과는 대척점에서 있다.

이들이 보여준 급여 명세서와 공장 규정집을 대조해보니 불법적 임금 감봉과 지나친 초과 근무가 다반사인 걸로 드러났다. 그들은 가족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무려 4배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했지만, 일정이 빽빽할 때면 업무가 끝나도 퇴근이 불가능했다. 얘기를 나누었던 워킹맘 열 한 명 중 여섯 명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 아이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보냈고, 1년에 겨우 한 두 번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살아보려고 일을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가족이 서로 헤어져 지내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나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이키사에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지만, 나이키 측은 전혀 놀라지도 특별히 염려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라며 이들이 하는 일이 그리 중요하거나 보수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이키의 여권 신장 캠페인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의 의류 산업 내 노동 기준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이키는 겹, H&M 등과 같이 노동 기준을 무너뜨리도록 고안된 체제에 동참하는 수 많은 다국적 브랜드 기업 중 하나다. 나이키는 외주 하청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이는 베트남에서는 독립 노조 결성 및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오나 그의 동료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무력감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의 계산된 결과물이다.

나이키, 겹, 자라, H&M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비에 우선순을 줌으로써, 노동권 보호가 가장 취약한 나라와 거래를 하고 하오와 그의 동료들이 말해준 강압적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 **국내 의류산업**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와 파업은 필수적이다. 가장 유명하고 효과적인 파업으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민 노동자 클라라 레플릭이 주도했던 1909년 뉴욕의 ‘2만인의 시위’를 꼽을 수 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던 수만명의 노동자들은(이들의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이었다) 더 이상 가혹한 노동을 참을 수 없었다. 월급은 주급 4달러 수준인데 근무시간은 주 65시간을 초과했고, 공장은 위험하고 지저분할 뿐 아니라 성희롱이 일상이었다. 레플릭과 같은 노조 조직위원에게 수익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공장 여건을 개선하도록 공장 사장들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로서 공장문을 단도록 그들의 결집된 힘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했지만, 일정이 박박할 때면 업무가 끝나도 퇴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석 달 동안 2만에서 3만 명의 의류 노동자들은 차디찬 뉴욕의 겨울을 헤치고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며 로어 맨해튼 거리를 걸었다. 여성운동가이자 노동 역사학자인 아넬리스 올렉(Annelise Orleck)은 자신의 저서 “상식과 화재(Common Sense and a Little Fire)”에서 공장주들이 뉴욕 경찰을 등에 업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에만 700명의 여성들이 체포됐고, 뉴욕시 공무원들은 되려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굴고, 부도덕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레플릭도 17번이나 체포되었고 6번이나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노조, 부유층의 지원, 동정 어린 언론에 힘입어 끈질기게 투쟁했다. 그래서 마침내 남성 노조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파업을 통해 많은 목표를 이루었다. 이 운동으로 노조는 정식 승인을 받

았고, 주 52시간 근무 및 임금 인상도 달성했다. 파업의 성공으로 의류 산업 내 단체행동은 가능한 일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의류 공장 파업의 물결이 일었다.

파업의 성공으로 의류 산업 내 공장 근로 여건이 크게 나아지긴 했지만, 비극적인 실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맥스 블랭크와 아이작 해리스 등 트라이앵글 블라우스 공장의 몇몇 사장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개선하라는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2만인의 시위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1911년 3월 25일, 공장 건물 8층에 화재가 났고, 146명의 트라이앵글 공장 노동자들이(이들 대부분이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였다) 불타거나 공장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트라이앵글 화재 사고로 발생한 죽음과 2만인의 시위로 촉발된 파업의 물결은 노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노동 환경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아넬리스 올렉이 기술한 바와 같이 레플릭과 노조 조직위원들은 “1919년까지 전체 여성 의류 공장 노동자들의 절반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나중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채택했던 진보적인 노동 법안의 대부분은 당시 화재 사고를 목격하거나 화재로 친구들을 잃었던 여성 노동 운동가들이 만들거나 영감을 준 것이었다. 노동 여건이 개선된 것은 불가피하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뉴욕 의류 노동자들의 피와 용기의 결과물이다.

1 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의류제조업체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선호한다. 고정관념상 여성들의 민첩한 손가락은 섬세한 조립라인 작업에 적합하다. 더 큰 고정관념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유순해서 문제를 털 일으킬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대만의 어느 공장 인사 담당자는 인류학자인 린다 게일 아리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남자 노동자들은 경력상 가치가 없는 단순 작업을 하기에는

차분하지도 못하고 참을성도 없습니다. 이들은 불만이 생기면 바로 기계를 부수고 심지어 감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자요? 대개 약간 울다 말지요.”

이런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20세기 초 클라라 레플릭의 투지와 당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만명의 여성들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1909년과 오늘날의 차이점은 100년 전에는 뉴욕의 블라우스 차림의 중상층 목전에서 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했던 반면, 지금은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엄중 단속하고 탄압하는 일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피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시장에 하청을 주는 방식은 주문을 하는 서구 브랜드 관리자와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려는 공장 관리자가 사이에 필연적인 간극을 초래한다. 노조를 와해하려는 수고가 티셔츠 옆 솔기와 함께 외주 업체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빠져나갈 길은 수도 없이 많아졌다.

이러한 난관에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의 의류 노동자들은 품격 있는 노동과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2008년 베트남에서는 약 2만 여명의 나이키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집단 행동을 선동했다 하여 최소 7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한 지하 노동단체가 나이키 측에 노동자를 해고한 하청 업체에게 압력을 가해 다시 고용하도록 움직이라고 촉구하자 나이키의 글로벌 기업 사회적 책임 담당 선임 이사인 찰스 브라운은 베트남의 압제 정권 뒤에 숨어 버렸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고용주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답하면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5일간 출근하지 않으면 파업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은 베트남의 노동권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고 놀랍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율권을 높일

수단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이키가 베트남을 선택한 것이다.

나 이키가 공급망 및 외주 하청을 선택해 온 역사를 보면 기업의 세계화 전략 하에 어떻게 ‘바닥으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1970년대 나이키의 첫 외주 하청 대상국은 한국이었다. 군부독재 통치 하에 있던 당시 한국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었다. <미즈 매거진>(Ms. Magazine)의 바바라 에런라이크와 아네트 푸엔테스의 글이나 루스 피어슨과 다이앤 엘슨이 <페미니스트 리뷰>(Feminist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시루 같은 방에 여럿이 함께 살며 암울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재봉사였던 민중석 씨는 16시간의 근무 시간, 박봉, 건강 위험 등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견습공이 옷에 붙어 있는 실보무라지를 털어 낼 때면 방안 전체가 먼지로 가득해 숨쉬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먼지투성이 공기를 마시며 일하다 보니 폐결핵, 기관지염, 눈병 등을 앓는 사람이 늘어만 간다.” 민중석 씨가 보기에는 “한숨과 눈물 속에 우리의 피가 실과 솔기로 녹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의 기동대는 “강철 몽둥이와 인분을 가득 채운 양동이로 무장하고는 최소 한차례 이상 한국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려는 시도를 무참히 박살냈다. 이들은 여성 노조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 집기를 박살내고 인분을 여성 노동자들의 몸과 머리, 눈, 입에 마구 발라댔다.”

여성들이 적절한 임금 인상을 확보하고 심지어 군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자, 이번에는 나이키가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신시아 엔로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새로이 활동가로서의 자신감을 얻게 되자, 나이키의 하청업체들은 1980~1990년대에 걸쳐 한국의 무수히 많은 공장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만이 허용해 줄 수 있는 작업장의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

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이키와 여러 유럽, 미국 의 운동화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지로 이주해 버렸다.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나 이를 엄중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은 주로 소비자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199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온두라스 등지에 있는 수출 공장의 노동 착취 현상이 들끓나면 서 마침내 이들 기업들의 외주 하청 모델의 이면이 드러났다.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만 것이다. 소비자들은 노동 착취로 만든 신발이나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았고 외주 하청 모델이 채택한 방

임적인 접근법은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운동 단체, 학생,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 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처음에 나이키는 책임을 부정했다. 이들은 왜 기업이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사의 업무 관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되물으며 나이키는 유엔이 아니라 신발 회사라고 강변했다. 그뿐 아니라 나이키의 대변인은 “월급은 적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죠.” 라고 지적하며 이들 여성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뜨거운 땀방 아래서 코코넛이나 수확하는 것” 일 거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노조 및 노동 운동 전문가들이 비판한 나이키 같은 글로벌 회사들의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며, 불투명한 공장 관리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압박했지만,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품과 이윤만을 창출하는 환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나이키만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허핑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방글라데시에 있던 라나 플라자 공장이 붕괴하자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베네통의 CEO인 비아지오 키아롤란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베네통의 역할을 물었다. (이 사고로 1134명의 의류

공장 노동자들이 죽었고, 1911년 트라이앵글 공장 화재처럼 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고는 베네통의 책임이 아니라 하청 업체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전체 공급망을 별개로 떼어놓고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바다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착취가 최상층의 이윤과 직결되어 있고 외주 하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임을 이해할 때,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트라이앵글 화재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지만 힘의 불균형 관계 때문에 초래됐듯이, 라나 플라자 참사도 서구의 자본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빈곤 국에서 무자비하게 경쟁하도록 설계된 글로벌 사업 시스템의 결과였다.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변명을 허용하게 되면, 구조화된 착취 체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현대 패션 공급망의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노력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여러 유명 브랜드 기업들은 민간 부문 노동 분야에서 법정 최저 임금이 없는 국가들을 찾고 있는데, 그 대표적 국가가 에티오피아이다. 2017년 나는 이곳에서 몇 주를 보내며 에티오피아의 연구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켈빈 클라인과 토미 힐퍼거 브랜드를 소유한 H&M과 PVH에 의류를 납품하는 네 개 공장의 노동자 4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

에티오피아 내에서 가장 큰 H&M 납품업체의 노동자들은 매월 56시간까지 무보수로 초과 근무를 한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23세 여성 노동자는 공장 관리자가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자신을 보내주지 않아 자주 야간 학교 수업을 빠졌다고 토로했다. 한번은 이를 물리치고 야간 학교에 가자 관리자는 하루치 급여를 벌금으로 매겼다. 그녀와 동료들의 급여

명세서 기록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일한 초과 근무 수당의 일부만 간신히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인터뷰했던 그 공장 직원들의 초과 시간 평균 시급은 18센트(약 213원)였지만, 이들이 무보수로 일한 초과 근무 시간까지 고려하면 겨우 12센트(약 142원)에 불과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긴 근무시간, 성희롱, 극심한 업무 압박, 너무 덥고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 등으로 수시로 작업장에서 쓰러지곤 했다. 1909년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의류 무역이 개선될 유일한 길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정치 엘리트의 지원을 받아 의도적으로 악화시킨 힘의 불균형 상태에 도전하고 이를 바로잡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 이키 재단의 ‘여권 신장’ 자선 활동에서 **역설적인 점**은 나이키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진정한 여권 신장 활동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나이키 재단은 여성 인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똑똑한 사업 투자 정도로 이용한다. 결국 나이키 자체 재단과 홍보실에 투자하는 것이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니 말이다.

이들 기업은 자선 캠페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들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기업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간다.

그러나 노조의 활동과 파업, 노동법 집행 등을 통해 집단적인 권한 이양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1910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내 공장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 오늘날 유명 브랜드 회사들은 독립 노조의 위세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외주 하청을 하다보니 더 이상 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노출을 통해서만 기업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못 본 척해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대신에 우리는 운동화, 티셔츠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착취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는 유권자이자 소비자인 우리의 힘을 강력한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거래를 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품과 이윤을 창출하는 환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구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파업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에 지친 클라라 레플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여건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하나지요. 저는 막연하게 떠들어대는 발표자들의 얘기를 듣는데 지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파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파업 선언을 결의하는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 미쳤다. 생활임금? 미쳤다. 괴롭힘과 모멸감에서의 자유? 미쳤다. 육아휴직? 미쳤어. 단체 협상권? 미쳤군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기술 문명 없는 삶의 기록

마크 보일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을 것이다.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꿈. 10년 전, 경제학자 마크 보일은 돈 없이 사는 삶을 시도했다. 그리고 2년 전, 그는 현대 기술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는 마크 보일에게 물었다. '스마트'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바보 같은 휴대폰을 던져 버리고, '사회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반사회적인 소셜 미디어를 끊은 이후, 그가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2016년 동지 전날 밤 11시경에 나는 노트북 전원을 빼고 휴대폰을 껐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였다. 나는 짚으로 만든 오두막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손질을 했다. 그해 여름 내내 3에이커(약 3700평)나 되는 땅에 나는 오두막을 지었고, 먹고살기 위해 반쯤은 야생인 소규모 농지를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현대 기술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작정이었다. 수도도, 화석 연료도, 시계도, 전기나 어떤 동력 장치도 없으니, 당연히 세탁기나 인터넷, 전화나 라디오도 없고, 심지어 전구조차 없는 삶이 될 터였다. 이런 삶은 때때로 목가적이며 낭만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환상은 없었다. 한 예로, 나는 체인톱, 전동 기구나 트랙터 없이 직접 땅을 일구며 살기로 했으니, 낭만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일이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은 조금 복잡했다. 한편으론 내 삶이 가장 원초적으로 축소되어 이젠 어떤 청구서와 고지서의 압박도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마크 보일은 <가디언> 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본향으로 가는 길: 기술 문명 없는 삶의 이야기(The Way of Home: Tales from a Life without Technology)”의 저자이다. 본 글은 이 책에 기반하고 있다. 마크 보일은 현재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어 내가 이제껏 알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실감이 몰려왔다. 사실 그때, 산업화된 세상에서 모든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현실과의 모든 접촉을 잃게 될지, 아니면 진정한 삶의 실체를 만나게 될지 통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돈 없이 산다는 것

8년 전에 나는 돈 없는 삶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엔 인류학자들이 '선물 경제'라고 부른 방식을 일년 동안 실험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나는 선물 경제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나타나며 느껴지는지 보고 싶었다.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다. 나의 경제학적, 사업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냉철한 결론이었다. 그 결정은 생태적, 지정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해악의 중심에는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자원들로부터 인

산업화된 세상에서 모든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현실과의 모든 접촉을 잃게 될까, 아니면 진정한 삶의 실체를 만나게 될까?

간 자신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돈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실상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연과

인간을 확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돈을 포기함으로써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기는 했으나 산업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시에 나는 태양 전지판으로 내 LED, 노트북, 기계 장치 등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이 물건들은 오직 통화 체계와 산업화된 경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점점 이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당면한 많은 위기 집합체의 핵심에 단지 통화 경제와 자본주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업주의 또한 그 주범이었다.

요즘 들어서는 내가 왜 산업 문명을 거부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산업화된

삶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폐해를 몰라서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만 언급해 보자. 종의 대량 멸종, 자원 전쟁, 문화 제국주의, 기후 재앙, 광범위한 사찰, 표준화, 미개척지와 원주민 터전의 식민화, 공동체의 분열과 필연적인 불평등을 가져오는 수백만 직종의 자동화, 실직과 고용 불안정, 맹목적인 갈망(허위 선동가에게 권력 쟁취 기회를 풍성히 제공하는), 정신 건강의 극심한 악화, 암이나 심장병, 당뇨, 우울증, 자가면역질환, 비만과 같은 질병이 산업적 규모로 급증하고, 스크린 위의 허상을 쫓는 중독(영상, 포르노, TV프로그램, 신상품, 연예인의 사생활, 온라인 데이트, 연중 무휴 뉴스) 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안들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문제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유는 천천히 바뀌었다. 산업 문명을 거부하는 내 삶의 방식은 세상을 구하는 일과는 점점 상관없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는 참맛을 구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은 맛있어질 필요가 있다.

날 것의 뼈다귀

나는 생의 맥박을 다시 느끼게 되길 원했다. 악의 요소들을 감지하고 불합리를 벗겨낸 다음 아무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존재 자체의 뼈다귀를 훑고 싶었다.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진정한 친밀함과 우정, 그리고 공동체를 깊이 체험하고 싶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신 내 삶을 살리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을 모든 세포로 느끼고 싶었다. 단지 살아있다는 표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하고 단호하게 깊은 숲으로 들어가, 한때 내 먹이가 되어준 대지의 생명들에게 이제는 내 육신을 그들의 먹이로 내어줄 준비를 하고 싶었다. 까마귀는 내 눈을 파먹고, 여우는 내 얼굴을 물어뜯으며, 들개는 내 뼈를 으깨고, 솔담비는 내 넓적다리를 유용한 식량으로 취할 것이다. 난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나를 심각한 피학적 성향(마조히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탓하진 않겠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포기’ ‘~없이 살기’ 혹은 ‘끊기’ 같은 말은 항상 뭔가를 제한 당하고 금욕하는 상태로, 얻기보다는 잃게 되는 일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를 얻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잃고 얻는 것은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매순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 내 삶을 통틀어 나는 돈과 기계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이유는 의심의 여지없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과 기계가 대체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전혀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우리의 짧고 소중한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무엇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엇을 얻길 원하는가?

복잡해지기

내가 적용한 이런 방식의 삶을 종종 ‘단순한 삶’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다. 실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천 가지의 단순한 일들로 이루어진 복잡성이다. 반대로, 도시에서 살았던 과거의 내 삶은 아주 단순했지만 천 가지의 복잡한 것, 그러니까 스마트폰, 플러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업 문명의 무수한 기술들이 복잡해진 탓으로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졌다.

지나치게 단순해져서, 나만해도 복잡한 기계들 덕분에 매일 똑같은 일을 하기가 지루해졌고, 심지어 그 기계를 제조하는 사람들도 지루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웠다. 물론 내가 산업기술을 거부한 이유가 지루함 때문만은 아니다. 전원 스위치, 버튼, 웹사이트, 차량, 기기, 오락, 애플리케이션, 전동 기구, 새로운 편이 장치, 서비스 공급자, 편리한 도구, 편의 시설들 속에서,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돈 버는 일만이 유일하게 내가 하는 일이었다.



키크패트릭 세일이 “휴먼스케일(Human Scale)”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바람은 “단순해지기가 아니라 복잡해지기”가 되었다.

수돗물, 전기, 기계 없이 살면서 내 생활은 확실히 훨씬 복잡해졌다. 양면기 없이 사는 나의 하루는, 통에 모인 배설물을 퇴비장에 쏟아붓는 일로 시작된다. 참고로 이렇게 퇴비장에 모인 인분은 거름이 되어 18개월이 지나면 음식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 다음엔 샘으로 가서 그날 씻고 마실 물을 떠온다.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후, 그날 필요한 여러가지를 한다. 사과주를 만들고, 숲에서 통나무를 날라오고, 그 통나무를 도끼로 자르거나 쪼개고, 맥을 풀이나 열매를 구해오고, 채소밭에 거름을 주고, 나무를 심고, 차에 치여 죽은 꿩이나 사슴을 보면 가져와 가죽을 벗기고, 씨를 심고, 허브 화원에 잡초를 뽑고, 호수에 가서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나무를 깎아 숟가락을 만들기도 한다. 이외에도 현대성이 나에



내가 먹는 것

음식과 나의 관계가 바뀌면서 나를 둘러싼 세계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다. 내가 돈 없이 살기를 실천했을 때, 나는 10년 동안 동물 보호 운동가였고 엄격한 비건(채식주의자)이었다. 이제 나는 내 주위의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구한다. 대부분의 저녁식사는 직접 낚은 강꼬치 고기나 송어, 채취한 풀이나 나무 열매, 내가 기른 감자, 채소, 샐러드로 이루어진다. 가끔 차에 치여 죽은 사슴, 꿩, 비둘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도 상에 포함된다. 모두가 맛있다고 할 만한 식사는 아니다. 하지만 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먹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안다. 또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야생의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친밀감에 달려 있다는 자각이 너무도 생생하다.

게 해주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단순한 삶'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모든 것의 복잡하지 않은 본질일 것이다. 맞다. 거기엔 시간을 초월한 단순함이 있다. 산업문명이 우리 주위에 진공포장 해놓은 플라스틱을 벗겨냈을 때 남은 것은 더할 나위없이 단순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건강한 음식.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 신선한 공기. 소속감과 살아있다는 실감. 좋은 물. 가치 있는 목적. 친밀감. 활기차고 깊은 삶의 정수. 나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이런 것들 없이 살았다.

이러한 변화가 쉽지는 않았다. 나는 동물들을 사랑하는데도 먹어야만 하는 꺼림칙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느 날 아침에 텃밭 가꾸기를 한다면 일 년 동안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많은 흙 속의 생명들을 해치게 된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함에 반대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갈등도 없다. 죽음은 곧 삶이다. 죽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죽음의 규모, 그리고 죽음이 부여하는 단절만이 문제다. 또한 나는 전에 소위 '비건'이라고 부른 삶이 결코 '비건'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자동차도, 전화도, 플라스틱도, 비타민 영양제와 단백질바도, 병아리콩과 두유와 삼씨, 그 무엇도 비건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모두는 정치적 이념의 수확물로서 '제6의 대멸종'을 일으킨다. 우리 주변 세계를 오염시키며 연이어 서식지를 쓸어버리고 많은 생물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물론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이다. 내가 복잡한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 가졌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을까였다. 어쨌든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웹사이트,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되었다. 지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편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전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과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는 소셜 미디어를 포기한 이후로 내 이웃과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규모 농지에 있는 작은 무료 호스텔에 와서 머물곤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 나는 야생의 생명체들과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고요하게 성장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계로부터의 자유

현대 기술의 혜택을 포기했을 때 나는 시간의 구분 또한 없애 버렸다. 계절에 따르는 시간의 변화와 피할 수 없는 낮과 밤의 자연적 리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말이다. 시계 없이 산다는

게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삶의 방식의 핵심을 보여준다. 제이 그리피스가 시간에 대해 깊이 탐구한 책 《시간 밖의 시간》(당대)은 나의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시계로 구분된 시간의 개념은 현대의 산물이며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지를 이 책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 시계로 구분된 시간은 산업의 중심이다. 대량 생산, 특화되고 분화된 노동, 경제 규모와 표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시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시계의 시간에 얽매인 모든 것들이다. 그리피스의 시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리니치 표준시(Mean Time)’는 ‘가장 비열한 시간(Meanest Time Of All)’이다.

시계가 없으니 시간과 나의 관계는 극적으로 달라졌다. 뭘든지 더 오래 걸린다. 전기 주전자로 3분만에 차를 끓이는 일도, 빵과 피자를 사러 슈퍼마켓에 후딱 다녀오는 일도 없어졌다. 그런데도 이상한 건 내 시간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연필로 종이에 글을 쓰니, 모니터 상의 낚시 글이나 광고에 방해 받는 일이 없어졌다. 삶은 훨씬 여유로운 속도를 갖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이제 나는 계절의 리듬뿐 아니라, 내 신체 본연의 리듬을 느낀다. 자명종 소리 대신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잠이 깨니 이보다 더 좋은 단잠이 없다. 만일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모두 관두고 산행을 하고 싶다면, 그냥 그러면 된다. 마침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 하는 걸 배웠다. 삶은 더 다양해졌고, 챗바퀴 같은 반복은 줄어들었다. 이곳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산다는 건, 더 이상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하다. 이 생활은 직업상 경력을 쌓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되겠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 즉 행복을 위해서는 최고의 길이다.

단순함의 낭만화?

이러한 생활에서는 어떤 일도 쉽지 않았다. 정말로 쉽지 않다. 전화가 없으니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친구와 술 한잔하고 싶어도 메시

지를 전송할 수 없다. 알루미늄 욕조 안에 쭈그려 앉아서 물 주전자로 물을 부어가며 빨래를 한다는 게 비낭만적으로 들린다면, 맛다, 정말 낭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의 삶이 나름대로 패턴, 오래되어 잊혀진 해법을 갖고 있다는 걸 배웠다. 끝없이 밀려드는 이메일, 문자, 전화 대신에 나는 하루에 한 두 통의 편지를 받는다.

이 편지들은 나에게 참 소중한데. 언젠가 나는 야외에 온수 욕조를 지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손수 만든 블랙베

리 와인을 마시는 게 낭만적으로 들린다면, 맛다, 정말 낭만적이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하나가 주어진다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음악을 예로 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인터넷을 끊자, 마치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 같았다. 보위도 사라지고 조니 미첼도 사라졌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슬픔이 닥쳐왔다. 하지만 전자 기기를 통해 듣는 음악이 끊어지자, 직접 연주하는 전통 음악 세션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 심지어 나 자신이 악기를 연주한다. 비록 엉망이긴 하지만.

나는 과거를 낭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래를 낭만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나는 기술 문명을 누리면서도 살아 보았고, 없이도 살아 보았다. 그러니 어느 쪽이 나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는지 안다. 알도 레오폴드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안전, 풍요, 편안함, 장수를 누리며 둔감해지기를 원한다.”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건 너무 쉽다. 안락함과 충만한 삶 사이의 끊임없는 실랑이 속에서, 내 평생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이 세계의 모든 정서와 구성 요소 전부를 느끼고 싶다. 빗방울, 환희, 경이, 이 모든 것을 말이다. ➤

**나는 소셜 미디어를
포기한 이후로
내 이웃과 친구들과
보다 잘 지내고 있다.**

기독교 사업이란 모순된 말인가?

존 로즈 인터뷰

쟁기: 브루더호프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존 로즈: 공동체 사업인 커뮤니티 플레이팅스(Community Playthings)는 1947년부터 원목 완구와 교육용 가구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부터는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기구를 제작해왔는데 그게 리프트톤 보조기구(Rifton Equipment)입니다. 이 두 사업으로 전 세계 25개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사는 3천여명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공동체 학교, 대외 봉사, 쟁기를 포함한 출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봉사나 재난 지원, 그리고 사마리탄스퍼스(Samaritan's Purse),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같은 단체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독특한 점은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어느 회사와 같지만, 사업 운영을 공동체 모든 식구가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사장이나 직원이 따로 없고 모두가 똑같이 무보수로 일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존 로즈는 커뮤니티 플레이팅스와 리프트톤 보조기구의 개발팀장이다.

그것이 사업을 기독교적으로 운영하는 올바른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선임자였던 톰 포츠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톰은 필라델피아 퀘이커교 집안 출신으로 브루더호프 멤버가 되기 전에 철강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업이란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사업이란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동체 사업 운영도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합니다. 시장을 선별하고 틈새시장을 찾고,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사업 배후에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한마음 한 뜻으로 즐겁게 일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경제학은 어떤 것일까?” 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라는 마르크스의 슬로건은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터무니없는 유토피아적인 공상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이 모토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쟁기는 20년간 이 사업을 이끌어온 존 로즈와 공동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리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람 있는 일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 노동은 어떤 모습인가?

기업들은 대부분 최소 인력으로 최대 수입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살림에 필요한 수입을 버는 일에 모든 식구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손님이나 오래된 멤버, 숙련자나 비숙련자, 장애자나 비장애자, 예고하고 오던 그렇지 않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오면 환영받고 할 일이 늘 있습니다.

기독교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기독교적 노동은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말하는 것은 주체님은 일이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브루더호프에서 일이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일을 본보기로 합니다. 노동은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 공동체의 삶의 표현입니다. 볼트에 너트를 끼우는 일이 별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정신으로 한다면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공동체 작업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따로 조용한 곳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화나 외주 작업이 가능한 일도 직접 하려고 고집합니다. 여든 살 되신 분도 작업장에 오시면 공동체 사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브루더호프의 사업체, 커뮤니티 플레이팅스의 작업장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남용과 황폐를 가져온다는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이 공동체적 삶과 노동을 비판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실제로 누구도 주인이 아니며 결국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도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소유하는 순간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로 인해 불평등, 질투, 약탈, 전쟁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한 가지 근거 있는 비판은 사유재산을 폐지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사실 그리 큰 동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한 동기 부여는 목표 의식입니다.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 정부의 강요나 금전적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 삶으로의 부르심에서 모든 동기가 나옵니다.

또 지위나 신분이 동기가 되기도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의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더 가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나사 못을 박는 사람이나 모두 동등합니다.

그리고 직장 서열 문제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은 주방에 있는 사람보다 임금이 훨씬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군림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레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작업장에 오면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작업에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작업장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 권위적이거나 냉정하다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반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작업장이 돈을 버는 곳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최우선

사업상 긴급한 처리와 공동체의 요구가 충돌하지 않나요?

저희는 많은 경우 공동체 입장에서는 옳지만 사업상으로는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일례로, 커뮤니티 플레이밍스는 초창기에 제품을 수백 개의 학교 용품 판매 대리점에 할인가로 유통했습니다. 이것은 5백 명의 판매원을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주문 과열로 납품이 6개월이나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이 공동체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결국 공동체는 회의를 통해 제 선임자인 톰에게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업상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성장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동체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였다면 인력을 늘리고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관점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유통업체에 주는 할인을 없앴 것입니다. 톨은 사업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톨은 공동체의 요구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은 공동체의 진을 빼기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맞추어가는 방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맘몬, 곧 돈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도 작업장에서 작업능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한선을 두고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작업량을 줄이고 카탈로그 발송을 멈추고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합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자발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사업 진행과 상충하기도 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직의 관료화 문제에 직면합니다. 사업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질서가 관료주의적 조직으로 변질되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일에서 찾은 우애를 짓밟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과 자금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저희 업무 팀장을 해외 선교 사역에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누구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직을 변경할 경우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함께 살고 함께 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갈등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에 장비구입을 요청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동체가 방글라데시에 태풍이 와서 지원금을 보내야 해서 올해는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릅니다.

주문이 많이 밀렸을 경우 평소 농장이나 진료소, 출판사에서 일하던 식구들이 작업장에 와서 돕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추수 때나 지역 행사 지원을 할 경우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공동체 전 식구가 작업을 중단하고 소풍을 가거나 소프트볼을 합니다. 그로 인해 작업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공동체의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돈 버는 기계가 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공동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활과 노동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나요?



공동체 내부 노동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시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가 있으면 먼저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 업무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구분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나누고, 종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저는 작업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형제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사업상 일은 다른 모든 일을 소홀히 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동체에 좋은 것이 사업에도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이 자체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이용합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 삶의 대의를 위해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상호교류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와 외부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필요가 충돌하는 때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함께하기를 원하기에 판매 영업 담당자가 일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업을 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브루더호프 식구들 대부분은 고객이 지갑을 열게 설득하는 재주는 없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 시장인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장난감은 자기 자녀를 생각하며 부모들이 디자인합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전화 상담 시 상대방을 잠재적 고객이 아닌 인간으로 대합니다. 평생을 장애 자녀를 위해 분투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호전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금방 그쪽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신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대

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합니다. 그러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술발전 덕에 적은 노동자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기술발전이 공동체 내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합니다. 작업 능력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일이 필요하다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작업장은 어떤 방문객이라도 몇 분 설명만 들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기계를 다뤄야 하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저희는 작업공정 자동화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공동체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은 공동체 건물 사이에 30미터 가량의 배수로를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장비로는 1시간이면 거뜰히 해치울 일입니다. 하지만 25명의 형제가 삽과 곡괭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웬델 베리는 오늘날 기술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어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실제로 인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물론 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기업들이 ‘공동체성’과 ‘팀워크’가 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설명하신 내용과 실리콘 밸리 기업의 경영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영 원칙으로서 팀워크는 인위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팀워크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자매간의 사귄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일을 멈추고 먼저 해결을 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일 관계를 깨는 것은 험담입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하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갈등은 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악감정이 쌓여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어떤 분이 브루더호프는 사회주의의 장점인 평등, 형제애, 모두에게 보람 있는 노동과 자본주의의 장점인 기업가 정신, 창의성, 강한 노동 윤리를 절묘하게 결합했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창의적입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다면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이 생산 공장이라면 창의적으로 작업공정 개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노동이 의미가 있다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열심히 돕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수백 가지 작업이 있고, 사업 관련 외에도 많은 일과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배울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키웁니다.

돈은 어디에 유익한가?

브루더호프의 사업은 성공적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동체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도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성공은 내면생활에 해를 끼칩니다. 낭비



작가의 하루를 받아 사용 © Danny Burrows. dannyburrowsphotography.com

하게 되거나 이기적으로 되기 쉽고 소유욕이 생깁니다. 또 성공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착각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의 음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수입이 많아져 생기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문제는 수입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돈을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으며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신설을 위해 부지구매 목적 외에는 실제로 현금자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윌돈이 생길 경우 기부합니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전에 이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늘 이기적으로 되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파악하고, 늘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몇 년 전 목공방에서 조세프 슈탱글이라는 나이 드신 형제가 제게 오더니 쓰레기통에서 꺼냈다면 목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버하르트(아놀드, 브루더호프 설립자)라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네.” 그 목재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걸 고치는 게 비효율적이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나무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목재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큼니다. 하지만 조세프의 말도 옳습니다. 그는 자연이 준 것에 대한 청지기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 목재를 버린다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모든 나무토막을 버려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제품이 한번 쓰고 버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획적 구식화를 거부합니다. 우리 제품은 일단 어린이집같이 험하게 사용하는 곳에서조차 수십 년 제품 보증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할 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사업이 거의 70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듬더듬 나아갔고 이렇게 잘 되리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와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에도 좋은 것이라는 태도를 항상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신약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며 서로 돕는다면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 5월 1일 피터 맘슨과 인터뷰.

와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서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갈 힘의 운곽을 보기 시작했다. 철학자인 마이클 로이 (Michael Löwy)는 1992년에 발표한 논문 “구원과 유포아: 중앙 유럽에서의 자유주의 유대교”에서 하시딕 유대교의 전설들을 통해 란다우어는 “현재 안의 미래, 역사 속의 정신, 개인 속의 전체 … 감금되고 찢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것들 안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1908년 평온했던 시기가 끝날 무렵, 란다우어는 공동체들의 연합체인 ‘사회주의 연맹’ (Sozialistische Bund)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11년에는 “사회주의를 위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회주의란 요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연맹’의 활동은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란다우어는 독일인들에게 길가나 잔디밭에 음식을 재배하는 등 생산적인 협력을 격려했는데, 이 운동은 공동체를 배우는 장이 되었다. 휴전과 함께 란다우어의 무정부주의 운동과 이에 반하는 피의 공산당 혁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독일은 흔들렸다. 1910년 한 서평에서 란다우어는 이렇게 썼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론하고만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개의 고정되고 나누어진 계급이 있고, 그 두 계급은 서로를 향해 적으로 맞서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착취자들의 사상을 죽인다.”

그런 폭력은 결코 란다우어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적인 정이 있는 현재가 있을 때 좀 더 인간적인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란다우어는 조금이라도 반대의 여지가 있으면 제거해 버리는 정부의

강제적인 탄압에 휩쓸렸다. 그렇게 살해되어 공동묘지에 버려진 그의 시체는 나중에 딸이 발견했다.

란다우어는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그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란다우어의 유기적으로 연합된 농업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이스라엘 키부츠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그의 사상들은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시작한 에버하르트 아놀드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결국 1920년 그의 사상에 크게 고무된

공동체인 브루더호프가 태동하게 됐다.

란다우어는 1911년 행동강령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젊음과 야성, 그리고 용기 조차 없는, 그 어떤 것을 시도해도 즐거움이 없는, 겁 많고 보잘것 없는 자들 … 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계속 시도해야 한다. 계속되는 실패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극복할 때까지, 굳건하게 참고 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다.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방해의 위협을 기꺼이 직면하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을 다해서 성공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승리를 얻고 마침내 상륙할 육지를 보게 될 때까지 배가 난파되어 조난되는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감내하는 길을 거쳐야 한다.” ➤

“예수는 진실로
무궁무진한 인물이다.
너무나 부유하고,
아름답고, 자비롭다.”
구스타프 란다우어

구스타프 란다우어

제이슨 란젤

제이슨 란젤에

1919년 5월 1일 독일, 제1차 세계 대전 패배의 혼란스러운 여파 속에서 보수 무장 단체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뮌헨을 탈환했다. 그들은 뮌헨의 짧았던 혁명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49세의 기자 한 명을 체포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더러운 볼셰비키'(구소련 공산당의 별칭)라고 소리치며 그가 죽을 때까지 때리고 총을 쏘며 짓밟았다.

병사들의 말과 달리 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auer)는 볼셰비키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그 전 해에 볼셰비키들은 "세계가 지금껏 본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한 군사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기고했던 사람이다. 그는 비폭력적인 무정부주의자로서 군국화되고 자본주의적인 유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일자리를 나누고, 사랑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자발적인 공동체의 삶이라고 믿었다. 란다우어에게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풍요를 위한 몸부림"(사회주의를 위해, 1911)을 의미했다. 그것은 무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 체제가 아닌 "오래된 세계의 껍데기 안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신념으로, 다르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자생적인 민초 운동이었다.

란다우어는 1870년 4월 7일 독일 카를스루에의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독

일 낭만주의의 깊은 우물물을 마시며 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장과 빈민가,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싼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를 바로잡고자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란다우어는 1890년대 베를린의 문화 정치적 삶에 휩쓸렸다. 그는 극단에 입단하여 여배우인 그레테 로이슈너와 결혼했다(그들은 나중에 이혼했다). 란다우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을 확립시키기 위한 여러 개념들을 발전시켰다. 즉,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가 실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비전이었다. 잡지 <사회주의자>에 기고한 글로 인해 복역을 하기도 징역을 끝내자마자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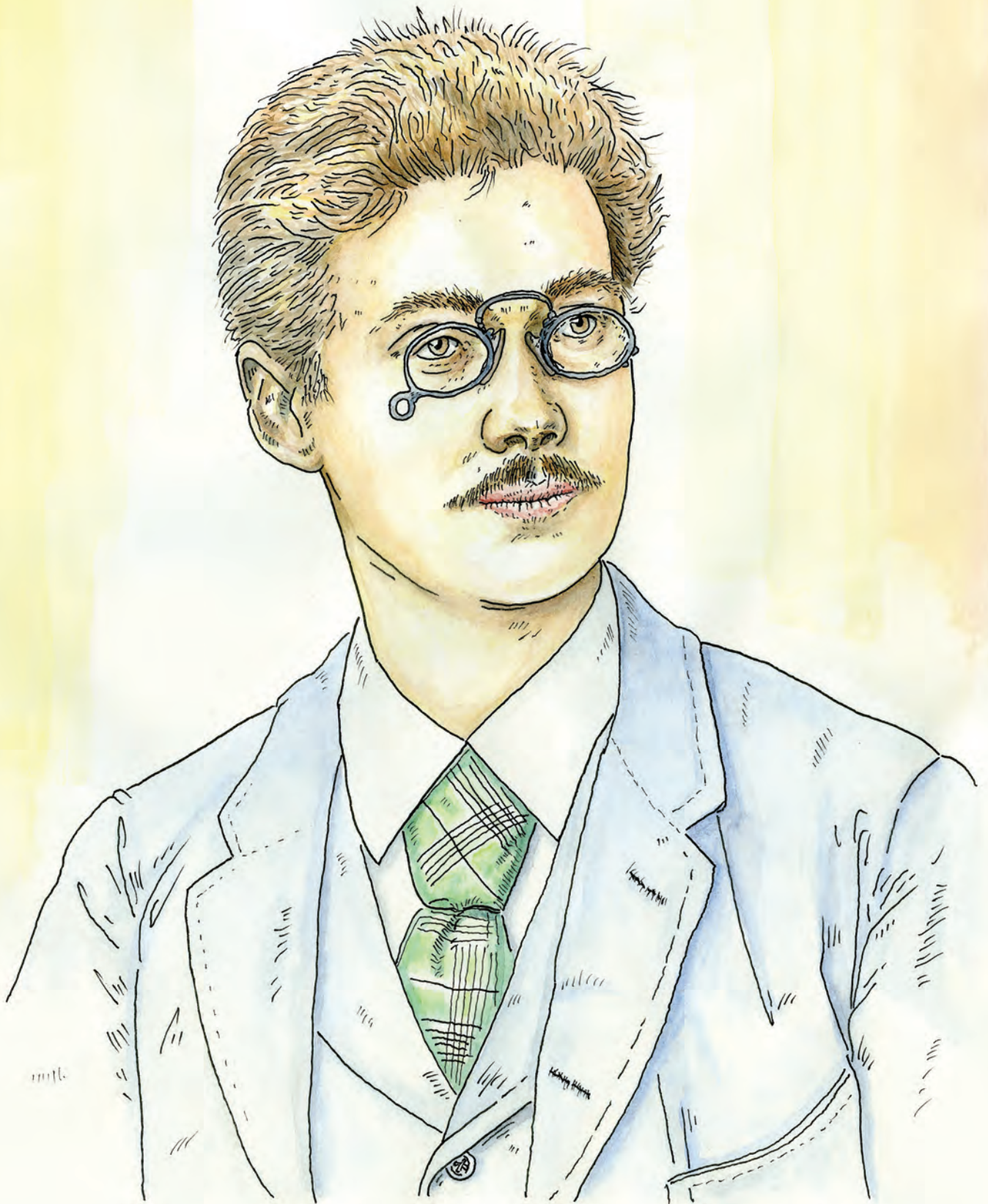
“사회 변혁은 오직
사랑과 노동
그리고 차분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스타프 란다우어

공동체(Neue Gemeinschaft)'라는 공산주의 단체에 동참했다. 여기서 그는 일생의 벗이 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를 만났다. 그 후 비교적 평온했던 기간 동안 란다우어는 셰익스피어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저서들을 번역했다.

무신론자임에도 란다우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사회주의로의 부름"이라는 책에서 그는 "예수는 진실로 무궁무진한 인물이다. 인류의 십자가 위에 잠잠히 아무 말 없이 고통받은 이러한 위대한 분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와 우리 조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라고 썼다. 부버를 통해서 그는 유대교

(앞 면으로 이어짐)

제이슨 란젤은 계간 <쟁기>의 '선구자들' 꼭지에 글과 그림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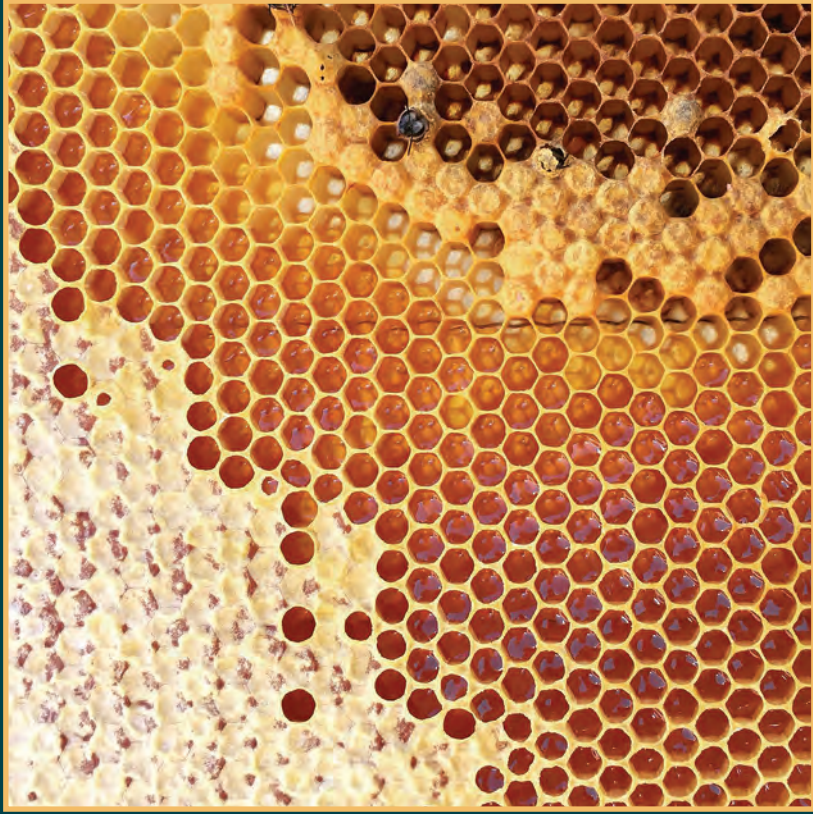


사진 @mckellajo, Hive & Hum에서

“돈을 사용하는 법을 험사리 찾기란 드문 일이다. 돈은 하나님
좋은 일을 위해 예비해 둔 수단이 아닌 탓이다. 돈으로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해를 끼치지 않
을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조지 맥도날드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www.plough.com/ko

쟁기출판사

Walden, New York, USA
Robertsbridge, East Sussex, UK
Elsmore, NSW, Australia